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발행·편집인 박종찬
편집주간 김성원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 총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O/T 411호
Tel. (051)245-7551~3 Fax. (051)245-7550

제작 사인텔 Tel. (051)245-2337

제36대 총동창회장에 박종찬 동문(25회) 취임

“임기내 총동창회관 구입... 동문들 자부심·공지 심어주고파”

제36대 경남중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에 박종찬 동문(25회)이 취임했다.

박종찬 동문은 지난 3월 7일 부산 중구 영주동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경남중고등학교 총동창회 제55차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36대 총동창회장에 추대됐다.

박종찬 회장은 취임소감으로 “총동창회장은 6만 여명의 동문을 대표하는 자리라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재정 문제 등 동창회의 안타까운 실상을 동문들에게 알리고 선배들과 함께 변화의 터닝 포인트를 찾아 후배들에게 밝은 미래의 동문회를 넘겨주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또 “임기중에 총동창회관 구입에 도전하겠다”며 “현재 보유중인 발전기금 13억원과 장학기금 16억원을 합쳐 약 29억원이 적립돼 있는데 20억원의 기부금을 모금하면 45억원 정도의 5층짜리 건물을 구입할 수 있다”고 야심찬 포부를 나타냈다.

이를 위해 박 회장 자신이 먼저 1억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3천만원 이상을 낸 고액 기부자들에게는 이름과 기수 금액 사진 등이 새겨진 동판을 동창회관 입구에 새겨 놓겠다고 했다. 그리고 기부 금액 달성을 위해 기부 릴레이를 실시 하겠다고 말했다. <취임사 2면, 인터뷰 4면>

동창회관 구입은 동문들과 동문가족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줄 뿐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수입도 총동창회의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동창회의 운영방법에 대해 박 회장은 “총동창회의 무게 중심이 후배들로 계속 기울어지는 현실을 받아들여 총동창회 운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며 “오는 4월말까지 기수별 해외포함 지역별직능별 조직과 함께 고문단 자문단 회보편집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명단을



지난 3월 7일 열린 경남중고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제36대 총동창회장으로 추대된 박종찬 동문(25회)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총망라한 조직표를 완성해 총동창회보에 실겠다”고 약속했다.

재경동창회와 총동창회와의 관계설정 등에 박 회장은 “동문회 역사속에 재경동창회의 역할은 너무 커서 열거할 수 없을 정도”라며 “그러나 서울로 진학하는 후배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어 앞으로는 모교가 있는 총동창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아무리 작은 집이 잘 살아도 큰 집 역할은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박 회장은 현재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동창회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3천만원으로 낮추었던 총동창회장 연회비를 5천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며 인원수를 정예화한 자문단과 부회장단으로부터 연회비를 충실히 받아 흑자 예산이 되도록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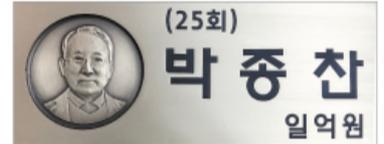
문들간의 갈등과 분열을 우려해 “동일한 관직을 두고 동문들끼리 경쟁하는 경우 총동창회 집행부는 100% 중립을 지켜야하고, 당선이 되면 다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임 박종찬 회장은 경남중, 경남고 25회로 서울대 공대를 나와 현대중공업, 효성엔지니어링 등에서 근무하다 37세의 젊은 나이에 선바부품 생산회사인 (주)제이텍을 설립했다.

현재 제이텍은 종업원이 143명인 선박인테리어분야와 주방설비분야에서 세계최고인 중소기업이다.

경남여중고와 이화여대를 졸업한 부인 문영희 여사와 사이에 딸 2명을 두고있다. 특히 큰딸 박주현 씨는 유재진 스타자동차 회장(22회)의 외아들 유창종 씨와 결혼해 박종찬 회장과 유재진 회장은 동문 사돈사이다.

총동창회관 구입기금 고액 모금운동



총동창회관 구입기금 고액 모금운동
1인 3천만원 이상 기부조건
모금 목표액 20억원 이상

모금현황(2018년 3월 8일 현재)
박종찬 25회 1억원
유재진 22회 5천만원
김진철 25회 5천만원

잔여모금액 18억원

• 모금 계좌

부산은행 101-2053-6720-01
경남중고총동창회 박종찬

기부자는 동창회관 입구에 이름과 사진 기수 기부금액이 명시된 가로 21cm 세로 9cm 된 동판 (사진 부착

1. 총동창회관 구입 기금 입금계좌
· 부산은행 101-2053-6720-01
· 경남중고총동창회 박종찬
2. 동창회보 연회비(3만원) 입금계좌
· 부산은행 101-2053-6722-04
· 경남중고 총동창회 박종찬
3. 자문위원 연회비(100만원) 입금계좌
· 부산은행 101-2053-6721-08
· 경남중고총동창회 박종찬
4. 부회장 연회비(100만원) 입금계좌
· 부산은행 101-2053-6721-08
· 경남중고 총동창회 박종찬
5. 분과위원 연회비(200만원) 입금계좌
· 부산은행 101-2053-6721-08
· 경남중고총동창회 박종찬

총동창회 정기총회 코모도호텔서 개최

380여명 참석... 신임 회장 선출·예결산안 통과

'경남중고등학교 총동창회 제55차 정기총회'가 지난 3월 7일 부산 중구 영주동 코모도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는 이병찬 회장(23회)과 박종찬 신임 회장(25회), 서병수 부산시장(25회),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21회), 김경희 재경동창회 고문(9회), 이명규 재경동창회 회장(24회), 남진현 총동창회 자문위원장(19회) 등 선배 동문 3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2017년 결산안보고와 신임회장 선출, 2018년 예산안편성 등 3가지 안건이 상정돼 신임 총동창회장에는 박종찬 동문(25회)이 만장일치로 추대되었고, 예결산안도 만장일치 박수로 통과됐다.

이어서 열린 유공자 표창 순서에서 이병찬 회장과 문규철 재경동창회장(23회), 노덕현 용마합창단장(19회), 강형식 기독교문

회장(26회), 김종하 창원동창회장(27회), 박창언 우리들의만남 회장(29회), 최영식 언론인클럽 회장(29회), 남기태 용마산악회 회장(31회), 손병철 용마회장(32회) 등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각 지역·직능·동호회장들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이날 이병찬 회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2015년 9월부터 2년6개월동안 총동창회장직을 수행해왔다”며 “다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으나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라는 거대한 조직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데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장직을 수행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중국청도동창회를 비롯해 지역동창

회와 직능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부지런히 뛰어다녔고, 이사회와 분과위원장 회의 를 매일 개최해 합리적인 의견도출에 노력했으며, 6·25 참전호국영웅명비와故 김영삼 대통령 흉상 건립사업도 동문여러분의 성원과 협조의 결과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고, 동창회 회원 총명부를 발간했으며, 51회, 52회 동기회의 창립도 이끌어냈다”고 재임 시절 업적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발전기금 1억원과故 김영삼 대통령 흉상 건립비용전액을 쾌척해 준 23회 동기 김영기 휴롬회장과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23회 동기들에게 이 자리를

(5면에 계속~)

박종찬 신임 회장 취임사

존경하는 선배님, 자랑스러운 동기생,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특히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와 주신 재경동창회 이명규회장님 이하 재경동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3년 전 박대동 회장님 시기에 총동창회 집행부에 참여하여 그 후 이병찬 회장님을 모셨고 이제 제36대 총동창회장으로 취임하는 25회 박종찬입니다.

약 6만여명의 동문을 대표하면서 무거운 사명감과 함께 동문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대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기회에 동문회의 안타까운 실상을 알리고 선후배님들과 같이 진정한 변화의 터닝포인트를 찾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동문회 역사에서 재경동창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서 동창회 번성에 대해서 기여한 바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동창회 생활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모교가 있는 총동창회의 몫이므로 제 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를 소개하자면 경남중, 경남고, 서울공대를 졸업했고 올해로 창립 30주년 되는 ㈜제이텍이라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조선해양관련 무역업에서 제조업으로 발전한 입직인 140여명의 중소기업입니다. 조선해양산업 중 제가 속한 좁은 분야에서는 국내 1위의 자리에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크루즈선 건조 때 세계 속의 하든챔피언을 꿈꾸고 있습니다.

25회는 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 서병수 부산시장, 박병우 국회의원, 김정대 하나금융회장, 한석정 동아대총장 등 유명인을 많이 보유한 기수로 총동창회를 단합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시점에 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얼마 전 부평동 골든오피스텔 4층에 있는 총동창회 사무국에 잠시 들렀습니다. 그 초라함에 실망이 매우 컸습니다. 기라성 같은 선배들을 무수히 배출했고 훌륭한 80년사 편찬을 앞두고 있는 동문회가 맞는지?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사무국을 가진 우리

의 위상은 부산에 있는 여러 동문회 중에서 아마 최하위일 것 같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안타깝지만 100년사를 쓸 후배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미래의 동문회는 후배들의 몫이므로 그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주는 선배들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 임기 중 총동창회관 구입에 도전하겠습니다.

현재 보유중인 발전기금 13억, 장학기금

계속해서 기울어지는 현실을 받아들여 총동창회의 운영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하겠습니다. 제 기수 이전의 활동하는 선배 동기회는 12개, 후배동기회는 27개입니다. 올해 72회 졸업생까지 계속해서 배출되는 수많은 후배들과 소통하고 단합시키는 노력은 15명의 분과위원들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 동기생들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서 5년, 10년 뒤 최고의 동문회가 되도록 새로운 초석을 깔아보

관심있는 선후배와 동고동락 동창회보 다양하게 활용할 터

16억을 합쳐 약 29억이 있는데 여기에 20억 이상의 기부금을 모금하면 약45억에 해당되는 5층 정도의 건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사무국, 회의실, 역사관 그리고 일부 상업공간을 가지게 되면 수익성도 확보가 되어 총동창회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족들과 손잡고 회관을 방문하는 동문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하는 동문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기금모금 마중물로 제가 먼저 1억원을 기부하겠습니다. 효과적인 모금을 위해 1인 3천만원이상 고액기부를 조건으로 해서 기부 동문의 사진과 이름을 새긴 동판을 회관에 부착하여 그 공로를 길이길이 남기겠습니다.

모금기간은 오는 12월말까지로 하고 정해진 계좌(부산은행 계좌: 101-2053-6720-01 경남중고총동창회 박종찬로 받겠습니다.

만일 그 기한 내에 20억 이상이 모금되지 않으면 회관구입은 불가능한 일로 간주하여 받은 기부금액을 기부동문에게 내년 초 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회관구입 목적성 기부조건이므로 타 용도로는 전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기부 과정은 동창회보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총동창회의 무게 중심이 후배들로

겠습니다.

오는 4월말까지 기수별, 해외 포함 지역별, 직능별 조직과 함께 고문단, 자문단, 회보편집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명단을 총망라한 조직표를 완성해서 동창회보에 신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동문회란 관심이 있는 동문과 관심이 전혀 없는 동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는 관심이 있는 선후배님들과 동고동락하겠습니다.

선배님들 중 아직 체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문회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계시면 자문단(24회 이전기수)에 합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회비 100만원을 형식적으로 거두지 않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총동창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자문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총동창회 운영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셋째, 돈 얘기를 하겠습니다. 건실한 동문회는 충분한 예산을 바탕으로 운영이 됩니다.

최근 몇 년간을 살펴보면 회비수입이 계속 줄어들어 매년 결손이 예상되는 열악한 재정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내린 총동창회장 연회비를 다시 5천만원으로 올려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자문위원과 부회장들이

내는 연회비 100만원을 귀하게 관리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하겠습니다.

부회장단에서 선출된 분과위원 15명은 연회비 200만원을 부담하면서 동문회 일을 맡아주는데 대해 동문들은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중요한 한 가지는 모든 동문들이 술선수법하여 동창회보 발간비용 1인 3만원의 연회비를 꼭 납부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발간될 동창회보는 중요한 정보공유 수단이며 재경동창회와 연계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모교 소식, 국내와 해외동문 소식, 각 기수 행사 소식뿐만 아니라 동문사업 소개 등 선후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강력한 툴(Tool)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산하 직능단체가 모교에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총동창회는 순수한 친목단체로 모교의 후학교육에 도움을 주는 역할만 해야 합니다.

다섯째, 동일한 관직을 두고 동문끼리 경쟁을 하는 경우 총동창회 집행부는 100%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 이후 총동창회에 자부심을 주는 성공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다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입후보 하는 경우에는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동문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피해야 할 2가지 문장을 알리고 싶습니다. "경남중학만 나왔다"와 "뺑뺑이다"라는 말을 입에 담은 동문은 5년제 경남중학교가 모체가 되어 탄생한 "경남중고총동창회" 역사를 잘 모르시는 것으로 이해하며, 이 시간 이후 같은 교가를 부르는 경남중과 경남고는 같은 동문회 소속임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평소 전심전력 철학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선배님을 공경하고 동기생과 후배님들을 사랑하겠습니다. 협조와 관심으로 잘 지켜봐 주십시오.

2018년 3월 7일
경남중고 제36대 총동창회장 박종찬

이병찬 전임 회장 취임사

존경하는 선배님 그리고 자랑스러운 후배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신 역대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동문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쁜 시정에도 참석해주신 서병수 부산광역시장님, 오거돈 전 장관님, 송규정 회장님, 이명규 재경동창회장님, 김경희 선배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기총회는 저의 임기가 끝이 나고 새로운 25회 박종찬 회장이 선임되면서 새 집행부가 출범하는 총회입니다.

총회에서 다들 의안들은 조금 전 이사회에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보고 및 승인해야 할 의안들이 많은 관계로 시간 관계상 빠른 진행을 위해 선후배 동문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지난 2015년 9월, 6만여 동문들의 심부름꾼으로 부름을 받아 2년6개월 동안 총동창회장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저에게는 다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

으나 '경남중고등학교 동창회'라는 거대한 조직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데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장직을 수행했습니다.

제가 평소 강조했던 '동창회장으로서 가야할 자리에는 반드시 가고, 있어야 할 자리에 항상 있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역대 회장님들의 노력으로 튼튼하게 기반이 다져진 동창회가 저 이후에도 기틀을 닦는데 노력

한 재임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청도 지역 동창회를 비롯해 지역 동창회와 직능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이사회와 분과위원장 회의를 매월 개최해 합리적인 의견 도출에 노력했으며, 6·25 참전 호국영웅 명비와故 김영삼 대령형 흉상 건립사업도 동문여러분의 성원과 협조의 결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아울러 동창회 회원 총명부를 발간했으며, 51회, 52회 동기회의 창립도 이끌어냈습니다.

제가 회장 재임기간 동안에 추진하고자 했던 일들이 대부분 실행에 옮겨졌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모교 역사 편찬과 53회 이후 후배 기수들의 지속적인 동기회 발족입니다.

이것은 동창회관 구입과 함께 차기 박종

동창회에 봉사 기회 가져 감사 동문 협조로 무사히 임기 마쳐

찬 회장과 임원진이 앞장서고 많은 동문이 합심을 하면 빠른 시일 내 그 결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저의 재임 중 말없이 수고하시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동창회 집행부 동문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문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발전기금 1억원과故 김영삼 대령형 흉상건립비용 전액을 쾌척해 준 23회 동기 김영기 류흥 회장과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23회 동기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이제 저는 많은 동문들의 축하와 사랑을 받으며 동창회장직을 떠나 평범하고 자랑스러운 경남중고 동문의 한사람으로 돌아가 모교의 발전과 동창회 단합에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나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으로 나아가는 자랑스러운 우리 동문들의 앞날에,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더 큰 용기와 기상이 떠나지 않기를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끝으로 13년간 총동창회 사무총장으로 고생하고 저와 함께 이임하는 황유명 사무총장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문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2018. 3. 7
경남중고 제35회 총동창회장 이병찬

정기총회 화보

“친구야! 잘 지냈나”... ‘용마의 봄’ 팡파르



문재인 대통령 축전

동문 선배님들, 후배님들 안녕하십니까?
 경남중고 총동창회 정기총회를 축하드립니다.
 함께 하고픈 마음은 절절한데, 못가서 아쉽습니다.
 이병찬 회장님, 지난 2년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박종찬 신임 회장님, 취임을 뜨겁게 축하합니다.
 박 회장님은 모교와 동문들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각별한 분입니다.
 전체 동문들의 친목과 화합을 이뤄낼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친한 동기지만 각듯이 모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선후배님들의 성원과 지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 일처럼 팔 걷어부친 여러분이 계셨기에 촛불은 햇불이 돼 새 정부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이게 나라냐?’는 탄식이 희망으로 바뀌고, 나라다운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힘으로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동문 선후배 여러분의 성원과 염원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국민의 나라,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용마인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그 길에 변함없이 함께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새 봄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경고 빛산 벚꽃이 활짝 피듯 하시는 일마다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2018. 3. 7



①코모도호텔 1층에서 열린 제55차 정기총회에 전국 각지에서 온 동문 38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②회장직을 무사히 인수하고 퇴임하는 이병찬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각종 직능 지구동문회 전직 회장들이 공로패를 받았다. ③이명규 재경 동창회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④정기총회에서 용마코러스가 축하노래를 부르고 있다. ⑤서병수 부신시장이 동기인 25회 동문들과 악수를 나누며 즐거워 하고 있다. ⑥송규정 지문위원 총동창회와 동문들의 발전을 위해 건배사를 외치고 있다. ⑦총동창회장의 동기생들로 구성된 운영위원들이 동문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⑧박종찬 회장과 이병찬 고문, 이명규 재경동창회 회장, 김경희 재경동창회 고문, 송규정 지문위원, 문창진 재경동창회 수석부회장이 케이크 컷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윤원욱 동문(39회)>

박종찬 신임 총동창회장 인터뷰

후배들에게 밝은 미래의 동문회 넘겨주기 위해 최선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으리’라는 Percy B. Shelly의 시구처럼 혹독했던 혼돈의 겨울이 지나가고 봄을 알리는 경칩이 지났다.

경남중고 총동창회도 봄과 함께 더 나은 도약을 기약하고 있다.

이같은 도약을 앞에서 이끌어갈 차기 총동창회 회장에 박종찬 제이텍 대표(25회)가 선출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서병수 부산시장 등 기라성 같은 동기들이 포진한 25회에서 추천을 받았다고 한다. 추천이유가 결단력있고 추진력이 있어 동창회를 더욱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책임자라는 것이다.

박종찬 회장의 취임과 함께 그의 동창회에 대한 포부와 열정을 들어 본다.



박종찬 총동창회 신임 회장이 총동창회 운영 등에 대해 계획을 밝히고 있다.

1. 경남중고 제36대 총동창회장에 취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취임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가지 이유로 동문회 운영방식이 변해야 되는 시점에 취임하기 때문에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며 후배들에게 밝은 미래의 동문회를 넘겨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임사 전문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문재인 현직 대통령이 동문이자 동기이고, 또 서병수 부산시장 역시 동문이자 동기로서 두 분 모두와는 각별한 사이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경남중고 총동창회장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자세로 임하실는지요?

문 대통령과 서 시장과 친구로서 가까운 사이는 사실입니다. 문 대통령이 기억을 잘 못할 겁니다만 문 대통령의 호평으로 장가가기 쉬웠던 일화가 있습니다. 서 시장은 함재비를 하고 제 결혼식 사회도 보았습니다. 명문동문출신이라는 자부심은 서로가 간직하고 있다고 봅니다. 동문회를 사랑하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고 총동창회의 좋은 전통을 후배들에게 보여주는 선배들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닳고 싶은 선배로 기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총동창회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새로운 회장단과 집행부를 구성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총동창회를 이끌실 생각입니까?

아시다시피 저는 25회 졸업입니다. 올해 72회 졸업생이 배출되었으니 정말 많은 숫자의 후배들이 있습니다. 고교평준화 이후 배출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한 후배들과 다양한 스킨십을 가져야 총동창회의 통합된 단결력이 생깁니다. 이에 따라 후배 중심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15개 분과로 보강하여 서로 교류하고 추후 멋진 총동창회장이 배출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를 만들고 동기생들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서 회장 역할의 부담을 통해 조직력을 키워갈 겁니다.

소통으로 적극적 동참 끌어 낼 것 흑자재정으로 모교 더 많이 지원

4. 총동창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의 결속력과 응집력 강화가 절실하고 재정적으로 탄탄한 안정화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이 같은 제반 문제와 난관들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랄까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요?

안타깝게도 총동창회의 재정상태는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은행의 이자율이 낮아진 원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동문회의 결속력 약화에 있습니다.

동창회보 연회비만 1인 3만원의 예로 들면 몇 년 전 4,000여명의 동문이 납부를 했으나 작년은 약 2,600명만이 납부를 했습니다.

후배들의 숫자는 늘어가는데 연회비 납부 숫자는 거꾸로 줄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시사하는 바는 총동창회 집행부가 선 후배님들에게 노력을 하면서 다가가지 않았다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저는 대신해서 반성을 하고 선후배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무언가 달라진 희망이 있는 총동창회로 만들겠습니다.

5. 몇몇 40대 기수를 포함하여 50대 기수 이후 동기회의 활성화가 동창회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면?

지금까지의 총동창회 운영방식은 약간 노후되었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19회 이용흥 회장님 때 큰 변화의 바람이 있었지만 제가 취임하는 이후는 더 많은 변화가 올 것입니다. 유명인사들을 많이 배출한 기수의 에너지를 가지고 후배들의 총동창회 진입에 쌍수로 환영하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집행부에 41회까지 포진을 시켰습니다. 졸업 후 20주년 홈커밍데이를 한 기수부터 총동창회에 정식 기수로 가입을 합니다만 이 점도 너무 늦은 시점에 가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의 사견으로는 졸업 후 너무 바쁜 10년정도가 지나면 총동창회에 가입하고 동창회보다 받아보고 동문으로서

선후배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작년 기준 52회까지만 총동창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62회까지 가입을 시키면 젊어지고 활력있는 동문회가 되지 않을까요?

6. 재경동창회가 독자적인 행보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향후 총동창회와 재경동창회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동문회 역사 속의 재경동창회의 역할은 너무 커서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여도가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는 동문회 역사의 흐름을 바꾸게 요구합니다.

일전에 재경동창회 정기총회 참석 기회에 제가 가진 3분 스피치에서 간단하게 압축한 문장으로 흐름을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잘 사는 작은 집이라도 분가를 지키는 큰 집은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의 표현 속에는 큰 집의 역할을 확실히 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끝없이 배출되는 후배들을 묶어주는 툴(Tool)만 있으면 동문회의 번성은 보장이 됩니다.

재경동창회는 서울 진학 후배들의 숫자가 급속도로 줄어 짧게는 5년 길어도 10년 후면 엄청난 변화가 올 것입니다. 따라서 모교를 지키는 총동창회가 더욱 중심을 잡고 멋지게 100년사 편찬을 하는 동문회가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7. 경남중고 모교에 대한 총동창회 차원의 지원 확대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거의 적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총동창회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몇 년 전 3천만원으로 낮추었던 총동창회장 연회비를 5천만원으로 스스로 올렸습니다.

인원을 정예화한 자문단과 부회장단으로부터 연회비를 충실히 받아서 흑자 결산이 되도록 하면서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금

액을 중·고교에 지원할 생각입니다. 각 동창회 회장과 총무들의 기수 부담금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많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확대된 지원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특히 경남고는 발전기금 약 70억을 보유한 재경동창회의 특별한 지원을 매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 주변에서 회장님의 강점에 대해 말합니다. 빠른 두뇌 회전, 정확한 판단력, 신속한 결단력, 끈질긴 추진력 등입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년 근무한 첫 직장은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현장 QC였고 결혼을 위해 서울에 있는 효성엔지니어링 설계로 옮긴 후 스웨덴 무역회사로 헤드헌팅이 되어 조선 관련 부산사무소장 6년후 37세에 회사를 창립했습니다. 현장 경험, 설계 경험, 무역 경험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심전력하는 자세로 생활을 해 왔습니다. 좋은 학교를 졸업했고 판단과 결단의 결과에 운이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9. 폭넓은 교우관계를 맺고 있는 줄 아는데, 각별한 교우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를 소개한다면?

25회 동기생 전부를 사랑합니다. 남부민초, 경남중, 경남고, 서울공대를 졸업했으니 얼마나 많은 교우친구들이 있겠습니까? 각별히 거명하면 불편해 하는 친구들이 더 많을 겁니다.

졸업생 모두다 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싫어하는 친구를 끊는 게 쉽지만 생략하겠습니다.

10. 사업에서도 일가를 이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일을 하고 있으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비결을 소개하자면?

하다보니 한 우물을 오래 폼뻤다고 표현하겠습니다. 2명으로 시작한 회사가 143명으로 성장했고 올해가 ㈜제이텍 창립 30주년이 됩니다.

조선 해양 분야 무역업에서 제조업으로 바뀌었지만 business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Trust)과 신용(Credit)이라는 철칙을 일찍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 자신을 표현하는 짧은 영어 단어를 소개합니다. WOW! Workaholic, Open-minded.

Win-Win attitude

11. 가족 관계를 이야기해주시고, 개인적인 미래 설계를 잠시 엿보게 해주다면?

경남여중·고와 이화여대를 졸업한 대연동 출신 집사람, 딸 2, 사위 2, 손자 2, 손녀 2이 있습니다. 큰 딸 사돈은 22회 유재진 선배님이라 너무 좋습니다.

미래의 꿈은 국내에서 크루즈선을 건조할 때 공실 인테리어 분야와 주방설비 분야에서 세계최고 기술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병찬 고문 인터뷰

‘YS홍상 건립과 동창회 총명부 발간, 가장 기억에 남아’

동기인 박대동 회장이 국회 윤리위 규정 때문에 총동창회장 직을 수행하지 못하자 기꺼이 동창회장 직을 이어받아 2년6개월 동안 동창회장 직을 수행해온 이병찬 회장.

이병찬 회장을 주위에서는 소리없이 할 일을 한 회장으로 평한다.

삼일회계법인 영남본부에서 분사해 선일회계법인을 창립, 바쁜 일과로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지경인 이병찬 회장을 사무실에서 만나 동창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들을 들어 보았다.

1. 언제부터 총동창회장직을 맡으셨죠.

동기인 박대동 회장이 국회윤리규정 개정으로 전국단위 총동창회 회장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 돼 2015년 9월 회장 대행을 시작으로 2년 6개월여 동안 제35회 총동창회장직을 수행했습니다.

2. 회장님 재임기간 중에 문재인(25회) 동문이 제19대 대통령에 당선, 취임하는 쾌거가 있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화신이라 할 김영삼(3회) 전 대통령의 서거도 있었습니다. 총 동창회장으로서 각각에 대해 감회를 말씀하신다면.

문민정부의 탄생과 금융실명제 실시 등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김영삼 대통령의 서거는 전 동문과 함께 가슴 아픈 슬픔이었으며, 많은 동문들이 애도와 조문을 했고,故 김영삼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을 시작으로 3부 요인이 배출돼 경남중고 동문회가 우리나라에서 3부 요인을 배출한 2번째 학교가 됐습니다. 그 자부심이 모든 동문들의 가슴에 간직되는 긍지로 남을 것입니다.

현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2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국내외적으로 유일한 경남중고가 되어보자는 우리동문들의 꿈을 실현시킨 쾌거였으며, 정치 이념을 달리하는 상당수 동문들이 계시지만 총동창회장으로서 경사 중 경사였다고 생각되며 우리 총동창회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총동창회 재임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고,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을 줄 압니다. 몇 가지 업적이라고 할 일들을 소개해주세요.



이병찬 전 회장이 2년 6개월간의 회장 재임기간에 대해 소회를 밝히고 있다.

모교 발전·동창회 단합 기여 보람 후임 회장, 동창회관 구입 실현을

‘동창회장으로서 가야할 자리에는 반드시 가고 있어야 할 자리에는 항상 있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취임 이후 지역동창회와 기능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부지런히 다니면서 노력했고, 이사회와 분과 위원장 회의를 매월 개최해 합리적인 의견 도출에 힘썼습니다.

경남고 모교 교정에 용마 6·25 참전 호국영웅명비를 부산보훈청과 함께 경남지방에서는 최초로 건립했으며,故 김영삼 대통령 홍상을 서거 1주년에 맞춰 건립했습니다. 7년만에 동창회 회원 총명부를 발간했으며 후배 기수 51회, 52회 동기회의 창립도 이끌어 내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마무리했습니다.

4. 재임 기간 동안 꼭 달성하고자 했지만 이루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 동문의 요람이 될 수 있는 동창회관 구입을 실현시키지 못한 점, 모교 역사 편찬 준비(80주년 대비)를 착실히 하지 못한 점, 55회 후배 기수까지 동기회 발족을 시키지 못한 점 등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기 박종찬 회장이 이 못 이룬 일들을 이어서 이뤄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5. 경남중고 동문사회가 지역사회나 국가적으로 보다 더 귀감이 될 수 있는 조직

로 거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어려운 질문이지만, 동문간 소통의 길을 넓혀서 세대간의 갈등을 해소해 나가고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동문 모두가 앞장서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이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6. 평소 서번트(Servant) 리더십을 강조해 오셨는데, 특별한 내력이라도 있으신지요.

특별한 내력은 없지만, 저는 30여년간 회계법인의 leader group으로 활동하면서 구성원을 섬기는 자세로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도우면서 조직의 목표 달성에 스스로가 기여하도록 하는 리더십이 조직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신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창회의 발전도 서번트 리더십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강조해왔습니다.

7. 회장님께서 즐겨 인용하시는 ‘아프리카 기우제’ 덕담과 건배사 ‘비행기’를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더 소개 해주신다면.

아프리카 한 부족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들 때 기우제를 올리는데 그러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가 내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우제를 올리기 때문입니다. 동창회의 부족한 사업도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질 것이

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인용했고, 계속하는 힘이 성공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배사 비행기는 비전을 행동으로 옮기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뜻으로 비행기를 선택하면 날자! 날자! 날자!를 세 번 외치는 건배구호입니다. 저는 회장으로 취임 후 이 건배사를 제가 건배사할 때 꼭 인용했고, 이 건배사를 하면서 우리 동문회의 비전, 동문 개개인의 비전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8. 향후 개인적이든 동창회적이든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는 삼일회계법인에서 40여년간 공인회계사 생활을 하면서 대표직책까지 승진했고 정년 퇴직 후 고문으로 4년간 근무했습니다. 이제 쉬어도 전혀 아쉬움이 없는데 삼일회계법인 leadership에서 삼일회계법인 영남본부를 분사해 새로이 책임을 부여해서 지난해 12월 1일자로 삼일회계법인을 창립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총동창회장직을 수행하고 나니 행운이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맡았던 회장직을 떠나 자랑스러운 경남중고 동문의 한사람으로 돌아가 모교의 발전과 동창회의 단합에 힘을 모아하겠습니다.

9. 소문에 건강관리를 꾸준히 해오신다는데 소개를 해주신다면.

건강관리는 40대 후반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반신욕을 20분 정도 매일 하고, 일주일에 3~4일은 반드시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합니다. 매일 땀을 흘리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선천적으로 잘 타고 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 후배 기수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모교 교가에 있는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영도에 날고 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고 더 큰 용기와 기상을 항상 가지고 생활해 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1면에 이어서~)

받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고 이임사를 마쳤습니다.

박종찬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미래의 동문회는 후배들의 몫이므로 그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주는 선배가 되어야한다”며 “5년이나 10년뒤 최고의 동문회가 될수 있도록 초석을 깔겠다”고 미래의 청사진을 밝혔다.

그리고 “대통령 2명 3부요인 등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배출한 경남중고동창회가

동창회관 하나 없는 현실이 부끄럽다”며 동창회관 구입을 최우선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명규 재경동창회장은 “박종찬 회장의 취임을 축하한다”며 “재경동창회와 총동창회가 힘을 합쳐 경남중고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환영사를 했다.

다음으로 걸어다니는 경남중고동창회 백과사전으로 불리는 김경희 재경동창회 고문은 “박종찬 회장이 아주 출중한 인물이라 동창회를 잘 이끌어갈 것 같다”며 “50년간 동창회 일을 보아왔는데 훌륭한 선배들

이 많으니 밀어주고 끌어주면된다”고 인사말을 했다.

다른 일정으로 회의장에 늦게 도착한 서병수 부산시장은 모든 테이블을 돌며 동문들에게 일일이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나누고 무대에 올라 “이병찬 회장님이 고생을 많이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36대 회장으로 선출된 박종찬 동기가 과거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동창회를 잘 이끌어 나가서 혁혁한 업적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어서 축하공연과 케이크 커팅 건배가

이어졌고, 교가제창을 끝으로 정기총회를 마쳤다.

2부 순서에는 용마합창단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한편 정기총회 바로 직전 코모도호텔 2층 회락정에서 2018년 정기이사회가 열려 2017년 결산안과 2018년예산, 신임 회장 선출건 등 모두 3건이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소모임 활성화가 동창회 발전 이끌어”

덕경회 신년하례회 성황... 문정수 전 부산시장 한석정 동아대 총장 등 참석



덕경회 신년하례회가 지난 2월 21일 해운대 파라디이스호텔 2층에서 열렸다.

경남중고등학교 출신 경제인 모임인 덕경회(회장 송규정)가 주관하는 ‘경남중고 동문 신년하례회’가 2월 21일 해운대구 파라디이스호텔 2층 카프리로움에서 8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하례회에는 송규정 덕경회 회장을 비롯해 문정수 전 부산시장(12회), 서병수 현 부산시장(25회),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장관(21회), 이종철 남구청장(16회), 조길우 전 부산시의회 의장(16회), 노기태 강서구청장(20회), 한석정 동아대 총장(25회) 등 정계 재계 학계 등 모든 분야에서 큰 활약을 펼치고 있는 동문들과 정대호 경남고교장이 참석했다.

박명진 덕경회 사무국장(33회)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박 동문의 김해상공회의소 회장선출을 축하하는 덕담으로 시작했다.

같은 라운드 테이블에 앉은 동문들과 환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 각 기수별 참석자 소개가 있었다.

송규정 회장은 환영사에서 “선후배 동문들이 모두 좋은 얼굴을 하고 있어 보니까 반갑고 기쁘다”며 “덕경회는 총동창회에서 뻗어나온 가지에 불과한 소모임이다. 이런 소모임의 동문회가 활성화되면 총동창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덕경회가 동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울타리가 되고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병찬 총동창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모든 동문들이 “무술년 새해에는 꿈과 희망이 가득차고 하시는 일 잘 되길바란다”며 덕담을 건넸다. 그리고 이어서 오는 3월, 한달후면 총동창회 회장직을 마치게 된다며 재임 기간중 동문여러분들의 격려와 도움으로

회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차기 총동창회장으로 선임된 박종찬 회장이 동창회의 발전을 더 많이 이룰수 있을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리고 모교인 경남고등학교가 교정이 너무 아름답다며 기회가 되면 가족친지들과 함께 방문해볼 것을 권유했다.

이어서 서병수 부산시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서병수 시장은 “지난 겨울은 굉장히 추웠는데 우수가 지나니 날이 풀렸다”며 “덕경회에 와서 인사를 하게 돼서 기쁘다. 올해 동문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하는일 잘 풀리길 바란다”고 서두를 꺼냈다.

서병수 시장은 지난 4년동안 열심히 시정을 위해 일을 했지만 4년동안은 마무리가 안 된다. 시장은 무조건 8년정도는 해야 구상했던 일이 어느정도 마무리될 것 같다”고 시장재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부산의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창업생태계 규제를 완화하는 등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제 싸이트기 시작했고 조금만 있으면 꽃이 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서 서 시장은 “시장으로하는 일이 많은데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게 고민”이라며 애로사항을 말한뒤 많은 홍보를 부탁했다.

그리고 “동문의 일원으로 경남고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시장으로서 일을 해 나겠다”며 인사말을 마쳤다.

서병수 시장의 인사말이 끝나고 케이크 커팅이 진행됐다. 케이크 커팅에는 송규정 덕경회 회장 문정수 전 부산시장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 서병수 부산시장 이용흠 총동창회 고문 이병찬 총동창회 회장 등이 참가했다.

이어서 문정수 전 부산시장과 이용흠 고문의 건배사에 이어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건배사가 이어졌다.

오 전 장관은 “덕경회가 인원수도 많이 늘고 많이 발전했다”며 “특히 덕경회 사무국장이 김해상공회의소 회장까지 맡게돼 덕경회의 위상이 더 올라갔다”고 추켜세운 뒤 “덕경회가 총동창회의 발전에 기여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건배사로 ‘출석을 잘 하자 회비를 잘 내자’라는 건배사를 해 참석 동문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덕경회 신년하례회에서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 이용흠 고문, 문정수 전 부산시장, 송규정 회장과 서병수 부산시장이 케이크 커팅을 하고 있다.

황유명 사무총장(29회) 후임에 옥동훈 동문(25회)



황유명 사무총장이 3월 7일 정기총회를 끝으로 총동창회 사무총장직을 퇴임하였다.

황 총장은 LG증권본사 기획과장과 정상천(4회) 국회의원 보좌관을 역임하고, 2005년부터 총동창회 사무국 일을 총괄하여왔다.



후임 사무총장으로는 옥동훈(25회) 동문이 선출되었다. 옥 동문은 부산대 행정과를 졸업한 후 대우 자동차 등에서 근무했고 25회 동기회 총무를 30여년째 맡아오고 있다.

박종찬 차기 총동창회 회장은 건배사에서 “25회 동기들이 인물이 많다. 대통령과 부산 시장, 국회의원 5명, 대학총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승효상 건축가, 송규규 전 도선시협회 회장 등 유명 인사들이 많다”고 소개한 뒤 “저도 제분야만큼은 국내 최고다. 단한번의 기회가 주어지면 최선을 다한다. 동창회장을 맡은 이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 차기회장은 “동창회의 무게중심이 후배기수들에게 기울고 있다. 젊어지는 동창회를 만들기 위해 동창회조직을 개편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차기회장의 건배사가 끝나고 식사시간이 이어졌다.

식사가 끝난후 라나에스포출신의 여가수 김희진 씨가 출연해 ‘사랑해’ ‘오솔길’ 등을 불렀다. 흥에 겨운 동문들의 앵콜 재앵콜이 이어졌다.

노래가 끝난후 송규정 회장의 폐회사를 마지막으로 신년하례회가 막을 내렸다.

경남중고 4회 “우리 홈커밍 70주년에 꼭 만나자”



경남중고 4회 졸업생들이 졸업 67주년을 맞아 기념촬영을 했다.

梁鍾學 張致錫 金廣興 余東沐 余周瑞 尹連道
崔奇植 金東輝 鄭致根 鄭善發 朴洪基 黃甲鎰

졸업 67주년 모임에 참석한 참석자 명단(사진 순으로).

경남 중고 4회 졸업생들은 지난해 11월10일 부산 동구 초량동 협성부페에서 2020년에 열릴 ‘홈커밍 70주년 준비 모임’을 했다. 이날 모임에는 정치근 전 법무부 장관(앞 줄 왼쪽에서 3번째)과 양중학 김동수 동문 등 90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일본 등지에서 12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3년 앞으로 다가온 졸업 70주년 홈커밍 데이에서 꼭 다시 얼굴을 보지며 참석자 이름을 일일이 붓글씨로 적고 사진사를 불러 옛날식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헤어졌다. 안타깝게도 이들 중 김주호 동문이 이후에 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양중학 동문(4회)>

지역 동창회 소식



경남중고 김해동창회 송년 파티 후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해동창회, '화끈한 송년파티'

경남중고 김해동창회 33회 정기총회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6시 경포장횃집 2층에서 열렸다.

김용진 사무국장(36회)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총회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참석동문들의 소개로 이어졌다.

최연삼 김해동창회 회장(28회)은 "연말에 정기총회를 겸하게 됐는데 김해동창회가 발족한지 50년이 됐다. 다들 도와줘서 고맙다"며 "총동창회 회장님과 임원들이 와서 감사하다. 모두 건강하고 복 많이 받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어서 이병찬 총동창회장은 축사에서 "선후배가 같이 모이는 것은 정이 함께하기 때문인데, 김해동창회는 정이 살아있는 것 같다"며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족들도 동창회에 함께 참석하는 것은 좋은 관례로 계속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그후 감사보고와 조판제 전임회장(25회)에 대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서 김영우 동문(19회)과 차의수 김해동창회 수석부회장(29회)에 대한 기여상 수상식도 있었다.

2부 행사가 이어져 행운권 추첨과 조촐한 파티에 이어 노래자랑 대회가 열렸다.

◇참석자=최태환(13회) 윤대희(21회) 이상운 김영기(23회) 조판제(25회) 외 4인 이동익(25회) 최연삼(28회) 외 1인 차의수 외 1인 박광수 박준모 박희규(29회) 김동욱 이광희(30회) 신수열 황성철(31회) 최호영 양문성 박원곤 외 1인 배종찬(32회) 박법규(33회) 노태진이성열(34회) 최민석(35회) 김규선 박형출김용진(36회) 김기덕(37회) 이남주 손옥명(40회) 김성준 조영호(44회) 이상현(45회)

한편 김해동창회 2018년도 2월 월례회가 동문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 13일 저녁 7시 범환상가내 기장복국에서 열렸다.

창원동창회, 신입회장에 정영주 동문



창원동창회 김종하 회장이 정영주 신입 회장에게 동창회기를 전달하고 있다.

경남중고 창원동창회 송년회 겸 회장이·취임식이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7시

창원호텔 2층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차기회장으로 정영주 동문(28회)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김종하 회장은 "회장직을 수행한 지난 2년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모교가 대통령을 2명이나 배출하는 고등학교가 되었으나 창원동창회는 고령화로 회원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다"며 "마창지역화합과 통합을 위해 노력했으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 같다. 차기회장이 더 노력해서 마창지역동창회가 더 번창해지기를 기원한다"고 인사

2018 '자랑스러운 용마상' 6명 선정

재경동창회 2018 '자랑스러운용마상' 수상자로 정철수(25회) 일신화학공업(주)대표이사 사장, 이희수(27회)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김영상(29회) 포스코대우 대표이사 사장, 김명우(31회) 두산중공업 사장, 최의열(33회) 바디텍메드(주)대표이사 사장, 노영수(61회) 관문점공동경비구역(JSA)경비대대 부소대장(중사) 등 6명이 선정됐다.

문규철(23회) 동창회장은 지난 1월 26일 반포 팔래스호텔에서 '자랑스러운 용마상'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수상 동문을 결정하고 "각계각층에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며 지도자로 활

약, 모교의 명예를 빛낸 용마동문을 기리고 격려하게 돼 기쁘다"면서 "특히 올해는 지난 1월 판문점 귀순북한병사를 구출한 'JSA영웅' 노영수 동문을 선정해 더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노 동문은 역대 최연소 수상자가 된다. 선정위원회에는 전재호(21회) 모교발전위원장, 배대관(25회) 동기회장, 박영빈(27회) 동기회장, 전희수(31회) 경삼회장, 김종균(41회) 늘봄회초대회장, 정아준(33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2월 2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재경동창회 '2018 정기총회 겸 신년하례회'에서 수상자들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덕형포럼 새 회장 박경재 동문



재경동창회 덕형포럼 제6대 회장에 박경재(26회) 동문이 지난달 선임됐다. 서울대 심리학과를 나와 매사추세츠

대에서 교육학박사학위를 받은 박 동문은 행시 22회로 교육부 요직과 서울 경기 대구교육청 부교육감, 동우대 총장, 한영외고교장을 지내고 2015년 동방문화대학원 대학총장에 취임했다.

윤수현(26회) 동문이 포럼위원장, 전희수(31회) 동문이 사회를 맡았다.

재경동창회 사무총장 심재구 동문



문규철 회장은 심재구(31회) 동문을 2월 1일자로 재경동창회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심 동문은 경남대 경영학과를 졸업

하고 20여년간 섬유회사 효성통상세일즈파트에서 일했다. 13년째 동기회 총무를 맡고 있으며 전임 정아준(33회) 사무총장 직전 2013년 9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약 2년간 사무총장으로 재임했다.

말을 했다.

정영주 신입회장은 취임사에서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전임회장단에 깊은 감사드리며 역대회장의 뒤를 이어 선후배간의 끈끈함이 흐를수 있는 용마동문회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병찬 총동창회장은 "창원동창회는 52년째 동창회 활동을 하고 있는 아주 오래된 동창회"라며 "앞으로 창원동창회가 일취월장하고 번창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모 집 공 고

직 책 : 총동창회 사무국장(상근)
응시자격 : 35회부터 42회 동문
근무지 : 총동창회 사무국
제출서류 : 이력서
제출기한 : 2018년 4월 10일
오후 6시까지
제출처 : jcpark@jeitek.co.kr



박종찬 총동창회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경남중·고 제25회 동기회원 일동

- 회 장 송 정 규 • 사무국장 여성조, 옥동훈
- 25골프회 회장 장세훈 • 25신우회 회장 예종복
- 25당구회 회장 한봉재 • 25또박이회 회장 권수갑
- 25산우회 회장 노태호

이희문 은사, 해운대지구동창회 송년회에서 '師弟의 정' 나눠



해운대지구 동창회 동문들이 송년회를 마친 후 서병수 부산시장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 하고 있다.

해운대지구동창회 2017년 송년회가 지난 11월 30일 해운대구 좌동 중식당인 비단비에서 열렸다.

이날 송년회에는 서병수 부산시장(25회)을 비롯해 이희문 전 경남고 교장(6회)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진호준(35회) 해운대지구동창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희문 대선배님이 후배들을 보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 자리에 제자이자 후배인 동문들이 많이 있는줄안다"며 "수술후 아직 완치되지 않은 남진현 자문위원장님도 참석

하셨다"고 소개한 후 해운대지구동창회의 발전과 동문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배를 제의했다.

이희문 전 경남고 교장은 인사말에서 "경남고를 떠난후 동창회 모임에 한번도 나가지 않았다"며 "요즘 양산에 거주하는데 끈질기게 참석을 요청해 오늘 처음 나왔다. 이런식으로하면 앞으로 더 많은 동문들이 참석할 수 있을것"이라고 했다.

남진현 자문위원장은 "선후배 동문들의 격려와 염려덕분으로 몸상태가 예전처럼 거의 돌아왔다. 선후배들의 격려와 후원 덕

분에 부활했으니 동문회를 위해 더욱더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

이어서 동창회에 처음 나온 동문들의 자기소개가 있었다.

31회 서수교 동문은 "해외생활을 하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해운대지구동창회에 나오게 됐다"며 "국내에 있는 동안 선후배들 잘 모시고 자주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수교 동문은 삼성석유 CEO로 있다 퇴직하고 현재 BP(영국석유회사)에 재직 중이다.

환경관리공단에 근무하는 38회 강금성 동문은 "몇 번이나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서먹해서 못하고 있었다"며 "해운대지구동창회 김태호 사무국장과 동기라서 참석을 하게 됐다"고 인사했다.

특히 강 동문은 재학시절 교감선생님 이시턴 이희문 선생님 앞에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병수 부산시장(25회)은 "해운대지구동창회는 아주 뜻 깊은 동창회"라며 "처음에 작고 돈독한 동창회였는데 신시가지와 센텀시티 마린시티가 만들어지면서 많은 동문들이 생겼다"고 했다.

이어 "세월이 참 빠르다. 내년 6월이 선거다. 정치는 내일을 모른다. 용기를 가지고 다니고 있으니 동문여러분들이 많이 도와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이석희 동문이 분양하는 해운대지역 모 분양호텔 홍보기념품이 참석한 모든 동문에게 전달됐다.

한편 지난 1월 24일 오후 7시 해운대지구동창회 신년회가 해운대구 우동 아르피나 8층 시골룸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은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은 80여 명의 동문들이 모여 오랜만에 북적이는 해운대지구동창회가 되었다.

행사가 끝나고 일부 동문들은 필레드시즈에 있는 맥주집에서 박종찬 신임 회장과 맥주잔을 들며 동창회 발전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36회 송년의 밤...성공담·소회 쏟아져

36회 송년의 밤이 지난해 12월 29일 자갈치 미정횃집에 열렸다.

양호진 동기회장의 인사와 함께 시작한 송년의 밤은 제1회 동창회장배 쟁탈 용마당 구대회에서 우승한 이학수 빌리회장 3년 동안 용마골프 회장을 역임한 김종백 동기의 소감을 차례로 듣는 기회를 가졌다.

그후 37회로 졸업은 했지만 3학년 1학기까지 36회와 함께 다녔던 김현철 동기를 공식적으로 36회로 인정한다는 안건이 상정돼 만장일치 박수로 통과시켰다.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다 최근 해운대중동에 '서울미성형외과'를 개업한 윤경준

동기와 36회 동기기 공식모임에 처음 참석한 서면 굿모닝성모안과 박진용 동기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그리고 차기 사하지구동창회 회장으로 내정된 최승호 동기의 소감과 최근 동구 서대신4동 동장으로 발령받은 김종오 동기의 소식을 전했다

◇참석자(무순)=김상백 신승렬 이학수 임창섭 양호진 김경찬 김종일 김덕주 송준호 김동기 차동엽 한형식 김종백 김동일 맹경태 김현철 전영목 정윤희 김종구 오명재 박진용 이성호 윤경준 안재익 임창의 임서용 정홍원 최상도



36회 송년의 밤에 참석한 동기들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용마코스 신임단장에 장춘식 동문



용마코스 단원들이 정기총회 후 신년회 식사자리를 가지고 있다.

용마코스는 지난 1월 16일 오후 7시 부산시민회관 4층 연습실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단장에 장춘식 동문(20회)을 선출했다.

또 부단장에는 최상규 동문(31회)을, 사무국장에는 김병기 동문(39회)을 각각 뽑았다.

그리고 감사에 박근태 동문(39회)과 박형규 동문(43회)을, 발전위원장에는 김석훈 동문(50회)이 선임됐다.

정기총회가 끝난후 인근 제주와홍돼지에서 신년회 겸 식사자리를 가졌다.

동창회보 광고

동창회보 광고를 받습니다. 여러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광고가 동창회의 활력이 됩니다. 필요하신 분은 영수증 처리가 됩니다.

▷ 광고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뒷면 전면광고 200만원/ 반면광고 100만원.

안쪽 전면광고 150만원/ 반면광고 75만원.

4단 하단광고는 25만원.

광고문의 총동창회 사무국 051-245-7551-3

또는 동창회보 편집주간 010-3878-3485

경남중고 총동창회

언론인 클럽, 동문 영전의 기쁨과 타계의 숙연함 교차



지난해 12월 26일 수영구청 앞 일해초밥에서 열린 언론인클럽 송년회에서 서병수 부산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방 앞 대원초밥에서 열린 경남중고 언론인클럽 신년회에 참석한 동문들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활짝 웃고 있다.

이날 모임에는 언론인클럽 소속 동문뿐만 아니라 서병수 부산시장(25회)과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에 출마한 장인화 통일철강 대표(35회)가 초청 동문으로 참석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박창호 IS동서 감사(24회)는 “지난 1979년 초량 아리랑호텔에서 부산일보와 국제신문 출신들로 용마언론인모임을 시작했다”며 용마언론인모임이 출범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더욱 많은 동문들이 참석해 출범 당시에 걸맞게 위상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초청 동문인 장인화 회장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에 처음부터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우연히 출마하게 됐다”며 “여러 선배들이 있으나 부산 경제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해 보겠다”고 상공회의

소 회장 출마의 변을 피력했다.

언론인클럽 회장인 조선 부산일보 감사(34회)는 “올해 용마언론인모임에 좋은 일이 많았다”며 영전한 회원들의 명단을 거명했다.

조선 회장이 거명한 회원은 김종명 도시공사 감사, 최영식 부산교통공단 감사(29회)와 강병균 부산일보 이사(38회), 배의정 국제신문 이사(34회) 등이다.

한편 조 회장은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기 마련”이라며 “강호일 선배님이 타계 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그리고 “모임에 더 많은 회원들을 참석 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건배를 제의했다.

이어서 참석한 동문들이 아랫기수부터

위기수차례로 돌아가면서 건배사를 했다.

다른 일정으로 모임중간에 참석한 서병수 부산시장(25회)은 기수별 소개차례가 되자 인사말을 했다.

서 시장은 “격동의 한해였다. 정치적으로는 탄핵이 있었고 조선 산업 부진 등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다. 게다가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정규직 문제 등으로 기업 환경 자체도 어려워졌다”고 운을 뗀 뒤 “부산시정을 이끌어오면서 기업유치와 투자 등을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정치 경제적 파도에 묻혀 부산시장으로서 한 일이 없다고 매도되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시정을 이끌어 오면서 현안 문제에 대해 급급하지 않고 일자리창출에 혼신의 힘을 기우렸다”며 “취임하면서 기

획했던 일이 이제 준공이 되려고 한다. 4년으로는 하고 싶었던 사업들을 완수하기는 불가능하다. 두번정도 시장을 더 해야 할 수 있다”고 시장출마에 대한 변을 말했다.

그리고 부산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며 임취월장이라는 생소한 건배사를 했다. 내용은 일자리 만들어서 취직 시켜서 월급 받아서 장가 빨리가게 하자라고 한다.

모임이 끝나고 회원들은 인근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목을 축이며 대화를 나누었다.

한편 지난 2월 28일 오후 7시 조방 앞 대원초밥에서 신년회가 열려 한 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은 날씨 탓에 회장 단 등 11명이 참석했다.

“시장선거 동문간 경쟁시 중립 지키자”

우리들의 만남... 전날 정기총회 탓 10명 참석

우리들의 만남 정기모임이 3월 8일 오후 7시 민락동 수변공원 용마횃집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은 경남중고 총동창회 제55차 정기총회 다음날이라서 그렇지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지 못했다.

김재철 회장(30회)은 인사말에서 “매설된 한파도 우수절기가 지나며 물러가고 저만치 손짓하는 훈풍이 느껴지는 것을 보면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는 말을 실감한다. 봄을 맞아 산뜻하게 출발하자”며 건배를 제의했다.

참석한 회원들은 다가오는 부산시장 선거에서 동문들간의 리턴메치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럴 경우 확실하게 중립을 지키자고 다짐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동문들은 모두 해운대지역에 거주해 해운대 모카페로 이동해 술자리를 이어갔다.

◇참석자=남진현(19회) 조만석(26회) 박창언 최영식(29회) 김재철(30회) 이석희(33회) 정윤희 신승렬(36회) 김태호(38회) 김진호(42회)



우리들의 만남 정기모임이 3월 8일 수변공원 용마횃집에서 열렸다.

부산시 용마회 신임회장에 안종일 동문(35회)

송년의 밤 및 회장 이·취임식... 시청 및 산하단체 동문 대거 참석

‘부산광역시 용마회 2017년 송년의 밤 겸 회장 이·취임식’이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7시 시청 앞 힘찬민물장어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남진현 자문위원장(19회), 조길우 전 부산시의회 의장(16회), 박창호 IS동서 감사(24회), 이만수 부산시장 정무특보(28회) 등 동창회 관계자들과 부산시청과 구군산하기관 동문들이 참석했다.

이만수 특보는 인사말에서 “선거철이 되니까 많이 바쁘다”며 “열심히하테니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어서 열린 회장 이·취임식에서 전임회장 손병철 동문(32회)은 “후배들을 위해 자

리를 해 준 선배들에게 감사하다”며 “그동안 모든 용마회 동문들이 도와줘서 무사히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 새 회장을 중심으로 단합하고 적극적으로 참석해 달라”고 부탁했다.

손병철 동문으로부터 바톤을 이어 받은 신임 회장인 안종일(35회) 부산시의회 사무처장은 “동문회는 영원하다”며 “조금더 분발해서 열심히 노력해 작은 것부터 실천해 동문회에 많은 동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만찬이 끝나고 후라경교와 교가제창을 끝으로 모임을 마쳤다.



‘부산광역시 용마회 2017년 송년의 밤 겸 회장 이·취임식’이 지난해 12월 15일 시청 앞 힘찬민물장어에서 열렸다.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성 갖춘 인재 배출에 역점 둘 터”

안민 고신대학교 총장(31회)

지난 2월 1일 고신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안민 동문(31회)은 경남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성악과 학사, 동대학원 석사를 거쳐 동아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4년 음악과 교수로 임용된 후 학생처장, 교무처장, 교학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이 메일을 통해 고신대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포부를 들어 보았다.

- 총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취임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나아가 지역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고신대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총장 재임 중 가장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기업인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면 대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상의 빛이 되는 인재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고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교육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선한 길을 제시하는 학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앙을 기초로 존재 이유를 확신하는 학생을 배출하는 고신대학교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안민 고신대 총장이 고신대 발전방안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만들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갈 것입니다.

-요즘 대학마다 특색있는 대학을 위해 많이 노력하는 것으로 아는데, 임기 중 '특별히 이 부분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힘을 기울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학교가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에 있어 중요한 것이 특성화입니다.

그래서 고신대가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선 교회와 관련한 것인데, 신학교육과 선교를 비롯한, 교회와 관련된 학과에 있어서는 우리 학교가 중심학교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에 보건과 재활, 치료, 복지, 장애인, 의료분야에서 몇몇 전공을 더 개발해 이쪽을 특화하려 합니다. '치료의 완성'이 영적

케어까지'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학교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교의 경쟁력 있는 분야들을 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선교중심대학으로의 국제화, 세계화입니다. 이 일을 위해 총장 직속으로 선교사명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면 쉽도 얻고, 학위과정도 하고, 영적 재충전도 받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 학교에 오면 그분들이 재충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교사명센터를 통해 만들려고 합니다. 기숙사를 제공해 쉬게도 해드리고, 병원을 통해 의료적인 서비스를 해드리고, 학문적으로 충진할 수 있는 과정들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을 짧은 단기교수로 활용해 학생들에게 선교비전을 심어주고 외국인 M.Div 과정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최소한 30%의 학생들이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특 하려고 합니다. 선교야말로 고신대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월드베스트'가 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한국 교육의 현실은 세계최고의 교육열과 엄청난 사교육비 투자에도 불구하고 교실이 붕괴되고 교육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극단의 교육위기 속에서 저는 오히려 희망을 봅니다.

대학은 사람을 키워 내는 것이 그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으로 배출해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신대학교는 이 교육 붕괴의 시대에 신앙에 뿌리를 내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며 사회를 책임질 차별화된 인재를 키워내므로 그 존재 이유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고신대에 와서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에 따라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단기계획으로 1년 동안 인문학 신양 수업, 문화 예술 수업 등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이수하는 '에벤에셀 칼리지'를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 중기계획으로는 선교중심의 대학으로 국제화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캠퍼스를 스토리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캠퍼스는 바다를 훤히 내려다보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캠퍼스 전체를 이야기 있는 명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원 같은 캠퍼스를 조성해 지역민들이 복락이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전·현직 언론사 간부출신으로 편집위원 위촉

동창회보 발전간담회 “동창회보 내실화 위해 적극 지원”

“동창들의 소식을 전하는 동창회보의 발전을 위해 좋은 방안을 듣기위해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총동창회보 발전을 위한 간담회가 1월 29일 오후 6시 30분 롯데호텔부산 43층 도림에서 열렸다.

박종찬 차기 총동창회장의 초대로 이루어진 이날 간담회에는 남진현 총동창회 자문위원장(19회), 김기열 우리강산 대표(23회), 박창호 IS동서 감사, 이상룡 전 총동창회보편집주간(24회), 김종명 부산도시공사 감사, 최영식 부산교통공사 감사(29회), 배정우 부산MBC 기술국장(31회), 조선 부산일보 감사(34회) 등 전현직 언론인들이 참석했다.

박종찬 차기 총동창회 회장은 “현재 동창회보가 총동창회에서 발간하는 총동창회보와 재경동창회에서 발간하는 용마지 등이원으로 발간된다”며 “이를 하나로 통합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 동창회보가 총동창회와 재경동창회에서 이중으로 발간하다보니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고 중복되는 기사도 많아 모교가 있는 총동창회에서 발간하는 총동창회보로 통합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편집과 인쇄도 총동창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종찬 차기 회장은 이에 덧붙여 “재경동창회는 동창회보 담당자도 1명이 있고 편집위원도 21명이나 있다. 그러다보니 매달 발간한다. 인력이 숫적으로 풍부하다보니 그렇다”며 “부산은 편집주간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한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동창회보가 발간되지 못하는게 현실”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총동창회도 재경동창회처럼 편집위원을 두려고 한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편집

◇ 총동창회 편집 위원 명단



김기열(23회)
전 국제신문 논설위원



이상룡(24회)
전 MBC뉴스데스크앵커데스크
전 불교방송 객원논설위원
전 총동창회보 편집주간



박창호(24회)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
이에스동서(주) 상임감사



김종명(29회)
전 부산일보 이사
부산도시공사 감사



최영식(29회)
전 부산MBC 상무이사
부산교통공사 상임감사



배정우(31회)
전 부산MBC 기술국장
부산MBC 광고사업국 국장



조선(34회)
부산일보 기자
부산일보 감사



정은혜(36회)
전 전주교통방송 편성제작국장
전 울산교통방송 편성제작국장
부산교통방송 방송심의실장



강병균(38회)
부산일보 기자
부산일보 편집논설이사

위원을 맡아 총동창회보를 만드는데 도움을 달라”고 즉석에서 제안해 동의를 받았다. 박종찬 차기 회장은 “취임을 하면 동창들

간에 소식을 전하는 소통 창구 중 하나인 총동창회보를 더욱더 내실있게 만들어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동창회의 르네상스를 열어달라”

총동창회 고문단회의... 정행권 송규정 이용흠 고문 등 참석



총동창회 고문단 회의를 마친 후 전현직 총동창회 회장들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경남중고등학교 총동창회장을 지낸 동문들을 모신 ‘경남중고 총동창회 고문단’ 회의가 1월 23일 오후 6시 30분 서면 롯데호텔부산 43층 도림에서 박종찬 차기 총동창회장 초대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정행권 협성운수(주) 회장(9회), 이용흠 (주)입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 회장(19회), 박대동 법무법인 율촌 고문(23회) 등 전임 회장과 이병찬 회장(23회), 박종찬 차기총동창회장(23회)과 송규정 (주)원스틸 회장(16회), 남진현 총동창회 자문위원장(19회), 유재진 스타자동차회장(22회) 등이 참석했다.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21회)은 외국 출장 관계로 불참했다. 허범도 부산대 석좌교수(22회)도 역시 개인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이날 회의는 남진현 자문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남진현 위원장은 “차기 동창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인 25회 박종찬 (주)제이텍 회장이 고문님들에게 신고를 하고 모시겠다고 해서 자

리를 마련했다”며 모임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석 동문들 한명 한명씩 소개에 들어갔다.

먼저 28대 총동창회장을 역임하면서 총동창회장 협찬금을 5천만원으로 인상해 동창회 운영에 많은 도움을 준 9회 동창회장을 지낸 정행권 고문.

덕경회 회장을 맡아 오면서 경남중고 출신 경제인들의 큰 기둥이 되고 있는 윈스틸 회장인 16회 송규정 자문위원.

31대 동창회장을 지낸 입신설계 대표 19회 이용흠 고문의 순으로 소개를 이어갔다. 이용흠 고문의 차례가 되자 남진현 자문위원장은 이용흠 고문은 재임 중 동창회의 외연확대는 물론 활력을 불어 넣었고 경남중고 언론인 모임을 부활시키는 등 동창회에 대한 기여도가 높았다고 부연의 말을 덧붙였다.

그 다음으로 올해까지 모두 19차례 열린 용마골프대회에 엄청난 기여를 한 스타자동차 회장인 22회 유재진 자문위원의 소개가 이어졌다.

법무법인 율촌 고문인 23회 박대동 고문과 이병찬 회장을 끝으로 참석자 소개가 끝났다.

다음으로 총동창회 차기 회장으로 선임된 박종찬 회장(25회)의 인사가 이어졌다.

박종찬 차기 회장은 “제이텍이라는 선박 인테리어 분야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연매출이 300억정도 되고 종업원이 140명 정도 있다. 이 분야에서는 세계최고의 기업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회사 소개를 시작으로 인사를 이어갔다.

박 차기 회장은 “총동창회와 재경동창회와의 위상 및 관계설정이 애매하다. 임기가 시작되면 총동창회가 큰 집으로서의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총동창회 명의로 동창회관을 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참석자 중 최고참인 정행권 고문은 “동창회에 관여하게 된 것은 정상천(4회) 선배때부터인데 벌써 30년이 넘었다.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간다”며 “회장으로 취임할 당시 동창회 기금이 어려워 회장 협찬금을 5천만원으로 인상했다” 협찬금 인상배경을 설명했다.

송규정 덕경회 회장은 “동창회는 혈연집

단이라서 구성원이 잘못해도 용서를 해줄 수 있는게 동창이고 한번 용마는 영원한 용마”라며 “박종찬 차기 회장이 더 큰일을 하고 단합된 동창회를 이끌어 주기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했다.

이용흠 고문은 “박종찬 회장이 경남중고 총동창회 회장을 맡겠다고 결심해준 것은 대단한 결단”이라며 “동창회장이 좋은 소리들은 적지 않으니 이 점을 명심하고 잘 대처해서 동창회의 구심점을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총동창회보가 동창회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 동문들의 소식을 잘 알릴 수 있는 박스기사를 많이 다뤄달라”고 요청했다.

유재진 회장은 “총동창회장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동기인 허범도 회장에게 양보해 기회를 놓쳤다”며 “그러나 지금이라도 동창회에 기여할 기회가 온다면 언제든지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주 자리를 만들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며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박대동 회장은 “개인적으로 동창회장을 맡아 일을 보다 중간에 그만두게 돼서 아쉬운 면이 많다”며 “동기인 이병찬 회장이 대신 동창회장직을 맡아서 고생을 하도록 해 마음의 짐이 많다”고 미안한 마음을 나타냈다.

이어서 “박종찬 회장은 동창회의 르네상스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이라는 기대감이 생긴다”며 “용마가 오랜 전통과 수많은 걸출한 인재를 배출한 학교라는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병찬 총동창회 회장은 “골프를 치러가 출신원을 했는데 마침 그때 총동창회 회장을 맡게 됐다. 출신원을 칠 때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동창회 일을 했다”며 “남은 기간 마무리를 잘해서 후임 회장이 잘할 수 있도록 도우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고문단과 회장단의 인사가 끝나자 남진현 자문위원장은 “경남중고동창회는 초대 회장부터 35대 회장까지 각고의 노력으로 움직여 지고 있다”며 “역대회장님들이 동창회를 위해 더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행권 고문의 건배사와 박수로 모임을 마무리했다.

“우리는 총동창회장 ‘아바타’ 아이가”

25회 동기들로 운영위원회 꾸려 회장 역할 대행



‘경남중고 총동창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2월 31일 서면 롯데호텔부산 43층 중식당 도림에서 열렸다.

‘경남중고 총동창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6시 서면 롯데호텔 부산 43층 중식당 도림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박종찬 총동창회 차기회

장을 비롯해 서병수 부산시장, 송정규 전 도선사협회 회장, 김진철 (주)디오 회장, 장세훈 (주)반석건설 부사장, 이명철 경성대 교수, 이상화 (주)상원 대표 등 25회 차기운영

위원회단 7명과 남진현 총동창회 자문위원장(19회), 유재진 스타자동차 회장(22회), 박성철(29회), 김현태(30회), 류명석(31회), 정운성(35회) 동문 등 총동창회 부회장 4명, 황유명 총동창회 사무총장(29회) 등이 참석했다.

박종찬 차기 회장은 이날 “동기들과 함께 총동창회를 이끌어가기 위해 25회동기들로 운영위원회단을 만들어 보았다”며 “이들의 역할은 회장의 업무를 대행해 각종 동창회 모임에 나가 회장 대신 인사도 하고 동창회를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회비 징수 목적도 있다고 했다.

그리고 “열악한 사무국 환경을 개선해 동문들이 찾는 동창회를 위해 임기내에 동창회관을 구입하겠다”며 “동창회관 구입을 위한 기부금 릴레이 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남진현 자문위원장은 23회에서 동창회장을 하다 24회를 건너뛰고 25회에서 동창회장을 맡게된 경위를 밝혔다.

남 위원장은 24회 동문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동기인 25회에서 총동창회장을 맡아 동창회 발전에 더욱 매진해 달라며 아

름다운 양보를 해 25회인 박종찬 회장이 총동창회장을 맡게 됐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견임을 전제, 일을 아무치게 잘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며 회장을 잘 뽑은 것 같다고 했다.

유재진 회장은 “재경동창회에 기금이 많은 이유는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동문들이 많은 액수를 기부했기 때문”이라며 “부산은 부산 실정에 맞는 액수의 기부를 하면 된다. 25회 동문들은 인재가 많기 때문에 동창회를 잘 이끌어갈 것이다. 힘을 모아 박종찬 차기 회장을 도우자”고 말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박종찬 회장은 동기들 사이에서도 일을 잘 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동창회가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것 같다”며 “당연직 부회장으로서 회비도 잘 내고 능력 닿는데까지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이날 회의에서 박종찬 차기 회장은 12년동안 재임한 황유명 사무총장(29회)을 해촉했다. 그리고 무보수 사무총장 아래 유급 사무국장을 1명 두겠다고 조직개편 내용 일부를 밝혔다.

재정·법률자문·조직·정보 등 15개 분과별 위원장 임명

박종찬 신임 회장, 총동창회 조직 구성 박차



재정·법률자문·조직·정보 등 15개 분과위원장들의 상견례가 지난 2월 7일 롯데호텔 부산 43층 도림에서 열렸다.

차기 총동창회를 실무적으로 이끌어 나갈 차기 집행분과위원회 상견례가 2월 7일 오후 6시 30분 롯데호텔 부산 43층 도림에서 열렸다.

이날 상견례에는 박종찬 차기 총동창회 회장을 비롯해 송정규 전 한국도선사협회장(25회)과 김종명 박성철(29회) 김현태(30회) 이병태(31회) 정운성(35회) 박진용(36회) 김태호 윤경만(38회) 등 차기 분과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종찬 차기회장은 동창회

의 발전을 위해 동창회 운영을 종전과는 조금 다른 색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뒤 25회 동기생 20명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20명의 운영위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 설명했다. 즉, 운영위원들은 100만원의 회비를 납부할 뿐 아니라 회장이 바빠서 참석이 불가능한 각종 동창회 모임에 회장을 대신해 참석, 회장 대신 인사말을 하는 것은 물론 동창들에게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아 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했다.

박종찬 차기회장은 또 재경동창회와 위상문제도 언급했다. 박종찬 차기회장은 "재경동창회는 총동창회 산하의 하나의 지회에 불과하다"고 뜻을 밝은 뒤 "경남중고등학교 동창회는 총동창회 중심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재경동창회에 적립돼 있는 적립기금 70억원을 부산에서는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겠다고 하며, 그러면 총동창회와 재경동창회 간에 꼬여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종찬 차기회장은 총동창회 회관 구입건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현재 적립금이 장학기금과 합쳐 약 30억원 정도가 있다고 운을 뚫 뒤 동창들을 상대로 자신의 임기내에 발전기금 20억원을 더 모금해 동창회관을 반드시 구입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뜻을 같이 하는 동문들로 부터 1인당 3천만원 이상씩의 기금을 받겠다고 박종찬 차기회장 자신이 먼저 1억원을 동창회관 구입 기금으로 내놓겠다고 선언했다.

또 종전까지 3천만원이던 총동창회장 협찬금도 5천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말한 뒤 기금을 낸 동문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이름 기수 등이 새겨진 동판을 제작해 동창회관 입구 벽면에 부착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종찬 차기회장은 동창회관이 생기면 자연스레 선후배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면서 동창회가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을거라고 기대를 나타내면서 총동창회가 멋지게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달라고 부탁했다.

분과위원장 소개 시간에 송정규위원장(25회)은 "박종찬 회장은 아주 치밀한 사람으로 동기회에 정평이 나 있다"며 "조직 등 모든 것을 치밀하게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조각했다는 것에 놀랐다. 경남중고 총동창회가 비약할 것이 확실하다"고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2시간 30분 가량 이어진 이날 회의는 이 호텔 로비에 있는 바에서 맥주를 마시며 총동창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주고 받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끝났다.

<각 분과별 위원장 명단>

- 상임: 송정규(25회) 재정: 김대욱(29회)
- 법률자문: 박성철(29회) 홍보: 김종명(29회)
- 조직: 김현태(30회) 대외협력: 이병태(31회)
- 사업: 박명진(33회) 지역: 이진호(34회)
- 총무: 정운성(35회) 봉사: 박진용(36회)
- 정보: 김태호(38회) 문화: 윤경만(38회)
- 보건의료: 박인석(39회) 직능: 한수열(40회)
- 기획: 이양걸(41회)

서병수 부산시장 북 콘서트

3,500여 명 참석... 열기 후끈



서병수 부산시장이 북콘서트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이어서 박종찬 총동창회장은 축사에서 "서병수 시장은 학창시절부터 죽마고우다. 결혼할때 서 시장이 합재비를 했고 결혼식사회도 봤다"고 친분을 과시한 뒤 "내가 알고 있는 서병수 시장은 부드러운 것 같아도 아주 강하고 결단력 있고 추진력이 있는 친구"라고 소개한 뒤 부산시정을 맡을 적임자라고 말했다.

서 시장은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열린 행사에서 일자리 창출과 다복동사업, 서부산 개발 등 지난 4년간 시정성과를 설명하고 부산의 미래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BRT(중앙버스전용차로)로 인해 해운대일대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주위에서 표 떨어지는 정책을 왜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정책적으로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만들어야 체증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앞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병수 부산시장(25회)의 '경계를 넘어라' 북 콘서트가 지난 3월 10일 오후 3시 해운대 벅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종찬 경남중고 총동창회장(25회) 유기준 국회의원(32회) 등 동문들과 윤상직 국회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시당 당협위원장, 기초단체장, 상공인, 시민 등 3,500여명이 몰려 발디딜 틈이 없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서병수 시장 임기 4년간 부산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겼다"며 '일자리 시장'을 내세운 서 시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후배들 동창회에 참여토록 유도할 것"

차기자문회의 롯데호텔서 개최



차기 자문위원 회의가 3월 5일 롯데호텔 부산에서 박종찬 차기총동창회장의 초대로 열렸다.

도록 유도하고 재경동창회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에 자문위원들은 "총동창회보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 발행부수도 늘려 많은 동문들에게 배포됐으면 한다"고 말하고 "박종찬 차기 회장은 리더십도 있고 훌륭하다는 평을 받고 있어 총동창회를 잘 이끌어 줄거라고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남진현 동문(19회)이 자문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신임 자문위원 참석자 명단>

- 18회 김길제 MSC회장, 서부원 (주)한솔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조성재 동기회장·부산해민요양병원장
- 19회 남진현 대선조선 전라기획본부장, 이준만 (주)씨엘 회장
- 21회 최점수 부경대 교수
- 23회 이부식 성산회계법인 대표
- 24회 광두희 전 (주)코세코 고문, 박창호 IS동서 상임감사

경남중고등학교 총동창회 차기 자문위원 회의가 3월 5일 오후 6시30분 롯데호텔 부산에서 박종찬 차기 총동창회장의 초대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차기자문위원 9명과 옥동훈 총동창회 차기사무총장(25회)이 참석했다.

박종찬 차기 총동창회 회장은 이날 총동창회관 매입과 총동창회의 활성화를 임기 중 최대 목표로 설정하고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수익사업을 벌여 모교인 경남 중고에 대한 지원영역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총동창회를 혁신하고 개혁 해 후배들이 동창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

경남고, 한수 아래 부산고 꺾고 2년만에 정상 탈환

전국 명문고 야구열전... 투수 서준원 '최동원 선수상', 윤준호 '최우수상'



전국명문고 야구열전에서 부산고를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한 경남고 선수와 동문들이 우승축하기념 사진을 찍었다.



박종찬 총동창회 회장이 경남고 후배 서준원 선수에게 직접 '최동원 상'을 시상했다.

역시 부산고는 경남고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경남고는 11일 부산 기장군 현대차 드림볼파크에서 막을 내린 제5회 전국명문고 야구열전(파이낸셜뉴스, 부산파이낸셜뉴스 공동주최) 마지막날 결승전에서 투타의 고른 활약에 힘입어 부산고를 8-2로 물리치고 우승했다.

지난 2016년 제3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경남고는 2년만에 다시 정상을 탈환

했다. 이 대회에서 두차례 우승한 팀은 경남고가 유일하다. 경남고 투수 서준원은 최동원 선수상, 경남고 포수 윤준호는 최우수선수상(MVP)을 각각 차지했다. 10타수 7안타 7할의 높은 타율을 기록한 부산고 지명타자 이도겸은 타격상을 수상했다.

경남고는 3루타 3개와 2루타 2개를 포함한 15안타로 활발한 타격을 보였다. 특히 7~9번 하위타선에서 8개의 안타를 때려냈다. 7번 박범진과 8번 고영우는 3안타씩을

기록했다.

최동원 선수상을 수상한 경남고 투수 서준원은 9회 마지막 한이닝을 책임졌다. 첫 타자에게 볼카운트 투나싱에서 승부를 서두르다 안타를 맞았으나 이후 세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처리하는 위력적투구를 선보였다. 이번대회는 총 12개팀이 참가해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거친 다음 조 1위끼리 4강 토너먼트를 벌였다.

이날 시상식에서 박종찬 경남중고 총동

창회 회장은 최동원상의 서준원 선수와 최우수선수상을 받은 윤준호 선수에게 직접 시상했다.

한편 이날 관중석에는 해운대지구동창회에서 단체로 응원을 나와 '후라경고'와 응원가를 외치며 후배들을 열렬히 응원했다. 특히 이날 응원을 위해 대대포에 거주하는 학창시절 응원단장 출신인 이수환 동문(37회)이 멀리서와 직접 응원을 주도했다.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모교야구부 후원의 밤 개최



이대호 선수가 주최한 '경남고등학교 야구부 후원의 밤 및 신입생 환영회'가 지난해 12월15일 서면 더샵 '헤리움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모교 출신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가 주최한 '경남고등학교 야구부 후원의 밤 및 신입생 환영회'가 지난해 12월 15일 서면 더샵 '헤리움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개그우먼 박은영 씨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동창회 간부 및 졸업생, 재학생,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대호 경남고교장은 환영사에서 "부산서 열린 주말리그와 정규리그에서 모두 통합우승을 했고 황금사자기 4강과

대통령배 준우승, 전국체전 우승 등을 했다"고 한해 동안 야구부성적을 소개한후 경남고의 야구발전을 위해서 모든 자원을 아끼지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행사에 참석한 경남고 입학예정인 야구선수들을 향해 경남고에 입학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하고 열심히해 대선수가 돼야된다고 격려했다.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장관(21회)은 "모교를 사랑하고 야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 이 행사를 만들었다며 이 자리를

만드는데 기여를 한 이대호 이차호 형제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자"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오 장관은 "경남고는 대통령을 2명이나 만들어낸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이자 3부요인을 배출한 명문중 명문학교"라고 모교를자랑한후 "이 모든 것이 야구라는 매개체가 있어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모교 야구부가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해 상금 5천만원을 받는 실속 있는 야구를 했다"며 참석자들에게 웃음을 유도한 뒤 "전광렬 감독과 선수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이 행사가 야구부 후배들을 위한 후원의 자리로 이대호 송승준 등 동문들이 글러브 배트 등을 내놓았으니 많이 구입해 행사의 취지에 동참하자"고 야구용품 구입을 독려했다.

그리고 오 전 장관은 이대호 동문으로부터 배트를 전달 받았다.

행사 주최자인 이대호 동문은 축사에서 "경남중고 동문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한뒤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해 학교가 많이 빛났다. 경남고를 나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모교인 경남고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장관, 남진현 총동창회 자문위원장, 이요섭 전 경남중 교장, 류명석, 이병태 총동창회 부회장, 김태호 해운대지구동창회 사무국장, 류장근 경남고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남고 야구부 운동부 청렴도 최우수 학교선정



경남고등학교 야구부가 2017년도 학교 운동부 청렴도 최우수학교로 3년 연속 선정됐다.

그리고 상금 2천4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경남고야구부는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우승 성과급 5천만원을 비롯해 모두 7,4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경남중학교 국외문화체험학습



경남중학교는 2018년 1월 2일부터 6일까지 국외문화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지역동창회·동기회·동호회

15회 = 정기총회

지난 2월 26일에는 화교대반점에서 자문위원 회의를 열어 손부흥 동기회장의 연임을 의결하였다. 또 지난 12월 29일 구포집에서 50여명의 동기와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17회 = 정기총회



지난 12월 19일 연산동 해암뷔페에서 40여명의 동기와 가족이 모인 가운데 정기총회가 있었다.

18회 = 송년의 밤



지난해 12월 8일 마리나센터 블루키친 뷔페에서 100여명의 동기와 가족이 참석하여 송년의 밤을 가졌다.

20회 = 신년회

지난 2월 20일 터존뷔페에서 90여명의 동기와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가 있었다.

25회 = 신년회

지난 1월 27일 동기인 서병수(부산시장)이 남천동 소재 시장 공관으로 동기들을 초대하여 90여명의 동기와 가족이 모인 가운데 신년회를 가졌다.

26회 = 정기총회 겸 신년회

지난 1월 26일 르네상스호텔에서 40여명의 동기와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겸 신년회가 있었다. 신임회장에 김영훈 동기가 선출되었다.

27회 = 정기총회



지난 2월 22일 수정호텔에서 20여명의 동기가 모여 정기총회를 가졌다. 유영호 동기가 신임 동기회장으로 취임하였다.

28회 = 정기총회

지난 12월 28일 30여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송년의 밤이 있었다. 차기 회장에는 김정현 동기, 수석 부회장에는 박종기 동기가 선출되었다.



29회 = 정기총회



2월 23일 용마호텔에서 30여명의 동기가 모여 정기총회를 열었다. 차기 회장으로 김철오 동기가 선출되었다.

30회 = 신년회



지난 1월 10일 대교호텔에서 30여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가 있었다. 황철민 동기가 차기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34회 = 정기총회



지난 2월 7일 서면 동남갈비에서 20여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가 열렸다.

경분회 = 정기법회



지난 1월 20일 법계정사에서 동문과 가족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정기법회가 있었다. 회장 : 정영천(21회, 변호사)

기독동문회 = 정기총회



NEWS 동문동정

손종식(24회), 후쿠오카 총영사



손종식 동문이 지난 12월 제18대 후쿠오카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에 취임했다. 손 동문은 중앙정보부,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참사관, 공사 등을 역임했다.

김정태(25회), 하나금융그룹회장 3연임



김 동문은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후 서울은행에서 출발, 하나는 송과지점장, 하나금융지주 부사장, 하나대투증권 사장, 하나는행장을 거쳐 2012년 3월 하나금융회장에 취임해 2015년 연임에 성공했다. 평소 '리더십'보다 '팔로워십'을 강조하며 임직원들과 격의없이 소통하는 김 동문은 2011년부터 작년까지 국립중앙박물관 회장으로도 봉사했다.

남세규(27회), 국방과학 연구소장



남세규 동문이 지난 12월 18일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에 임명됐다. 남 동문은 부산대학교 기계설계학과를 졸업하고, 1978년 ADD에 들어가 현무체계부 팀장, 대지유도부기체계 단장, 제1기술연구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한국방위산업학회 부회장도 맡고 있다.

구영소(28회), 아시아드 CC대표이사 연임



구영소 동문이 부산시 출자기관인 아시아드컨트리클럽의 대표이사로 연임됐다. 아시아드CC는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참석 주주의 만장일치로 구영소 현 대표를 재선임했다.

지난 2015년 1월 취임한 구 대표는 연임으로 앞으로 3년간 임기를 보장받게 됐다. 구 대표는 2015년부터 아시아드CC 대표를 맡아 재임기간 중 공정·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으로 부산시 경영평가에서 하위등급에 머물던 아시아드 CC를 2년연속 '가

등급'(최고)으로 격상시켰다.

그는 또 3년간 연평균 20억원에 가까운 당기 순이익을 냈다. 또 부채비율을 1149%에서 186%로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해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이에 더 해고질적 문제였던 코스피 어웨이 배수불량을 해결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환기(30회), 춘천교대 총장



이환기 동문이 지난 11월 1일 제7대 춘천교육대학교 총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 동문은 서울대 교육학과와 동 대학원 석·박사를 거쳐 1995년 3월 춘천교대에 부임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초등학교종합평가위원장, 강원도지역교육청 평가위원장, 교원양성기관평가위원장 등도 역임했다. 임기는 4년이다.

정지원(35회), 한국거래소 이사장



정지원 동문이 지난 11월 1일 제6대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취임했다. 정 동문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 후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 공

직생활을 시작해 재무부와 재정경제부에서 일한 뒤 금융위원회에서 은행감독과장, 감독정책과장, 금융서비스국장,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임기는 3년이다.

허찬(37회), 해운대경찰 서장



허찬 동문은 이번에 경무관으로 승진한 서울경찰청 경비1과장 출신이다. 경남고와 경찰대 4기 출신으로 충남 아산 서장, 국회경비대장, 서울남대문 서장, 서울청 202경비 단장 등을 요직을 두루 지냈다.

이종운(39회), SK 루키팀 코치



이종운 동문이 지난 11월 13일 SK와 이브스 루키팀 책임코치로 영입됐다. 이 동문은 동아대 졸업 후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하여 롯데 자이언츠, 한화이글스에 선수로 활약하였고, 경고 감독, 롯데 자이언츠 감독 등을 역임하였다.

지난 2월 1일 대연동 대동교회에서 3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가 있었다. 신임회장에 이요섭(27회, 전 경남중 교장) 동문이 취임하였다.

워싱턴 볼티모어 동창회 = 신년회



지난 1월 6일, 2018년 새해를 맞이하는 신년파티 겸 동창회가 열렸다. 지난 3년 동안 회장을 맡아 동창회 활성화에 힘쓴 이동진(22회) 동문의 이임식과 신임 회장 전용빈(24회)동문의 취임식이 있었다.

◇참석 동문=이형석(5회), 홍영석(12회), 이태영(14회), 한수봉(14회), 성광수(15회), 안준철(17회), 김기공(22회), 이동진(22회, 전 회장), 김성환(24회), 전용빈(24회, 신임회장), 신희재(25회), 오태관(25회), 박경배(29회), 최장혁(36회), 이성립(30회)

용마산악회 = 납회산행

지난 12월 10일 경주 '단석산' 일대에서 100여명의 용마와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동창회장기 용마등반대회가 열렸다. 1년 4차례 등반 모임에서 참석인원이 제일 많은 기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는 이번 대회에서



는31회가 1등을 차지하였고, 23회 2등을 차지하였다. 우수상은 41회, 공로상은 17회에 돌아갔다.

회장 : 남기태(31회, 토암건설(주) 대표이사)

용마 산악회 = 정기 산행



지난 3월 11일 거제도 망산에서 110여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첫 정기 산행이 있었다. 이번 산행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6월 10일 상주 성주봉, 9월 9일 밀양 종남산, 12월 9일 영산 영축산을 산행할 계획이다.

용마당구회 = 제5회 용마당구대회

총동창회가 후원하고 용마당구회(회장 23회 김종광)가 주관하는 제5회 용마당구대회가 지난 12월 2일 남포동소재 뉴다빈치



당구장에서 열렸다. 우승은 36회가 차지했으며 준우승은 30회, 3위에는 24회가 각각 차지했다. 한이닝 최대 연타를 친 하이런상은 김학주(24회) 동문이 받았다.

회장 : 김종광(23회, (주)SURECATCH KOREA 대표이사)

투고 환영

경남중동창회보는 용마동문 여러분의 소식을 알리는 창입니다. 여러분의 동정 및 모임, 칼럼, 수필, 시, 기행문, 감상문, 사진, 그림 등을 동문들에게 알리고 공유하고 싶은 것이면 무조건 환영합니다. 아래로 보내주시면 정성껏 편집해 동창회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yongma2007@hanmail.net

동창회보 편집주간 김성원(31회)

부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신도수(9회) = 2월 11일 작고
- ▶김충열(10회) = 작고
- ▶한경봉(10회) = 2월 15일 작고
- ▶김상태(15회) = 1월 17일 작고
- ▶유경수(15회) = 2월 19일 작고
- ▶최규사(16회) = 2월 12일 작고
- ▶오상길(26회) = 1월 5일 작고
- ▶사창환(30회) = 2월 5일 작고
- ▶구대훈(34회) = 11월 17일 작고
- ▶류송우(34회) = 12월 27일 작고
- ▶허지호(34회) = 12월 7일 작고
- ▶임진성(43회) = 2월 4일 작고

정정 기사

회보 415호
p13에 나간 이용주(20회) 9월 8일 작고는 본인상이 아닌 모친상으로 정정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13회〉

△ 윤영우 = 11월 26일 부인상

〈19회〉

△ 이양환 = 2월 7일 모친상

〈20회〉

△ 김형수 = 2월 24일 차녀 결혼 △ 윤봉태 = 11월 20일 부친상 △ 정용환 = 12월 2일 차남 결혼 △ 정세현 = 12월 9일 장남 결혼 △ 조상진 = 12월 24일 모친상 △ 조운태 = 2월 16일 모친상 △ 조상진 = 12월 24일 모친상 △ 주창웅 = 2월 14일 모친상 △ 허중경 = 12월 27일 빙모상

〈25회〉

△ 최병주 = 12월 27일 부친상

〈26회〉

△ 김채영 = 12월 22일 모친상 △ 박동현 = 12월 21일 모친상 △ 박용석 = 변호사 사무실 개업 「법무법인 구덕」 부산시 연제구 법원남로 15번길 4 성

신프라이언빌딩 302호 △ 박준규 = 12월 18일 모친상 △ 박철홍 = 12월 12일 빙부상, 2월 10일 장녀 결혼 △ 배홍규 = 2월 24일 장남 결혼 △ 장연웅 = 12월 12일 모친상 △ 정삼용 = 1월 2일 빙부상 △ 조해래 = 2월 3일 장남 결혼 △ 천종업 = 1월 3일 모친상 △ 최낙준 = 2월 2일 모친상 △ 최 현 = 1월 19일 부친상 △ 함재우 = 2월 25일 차녀 결혼

〈27회〉

△ 김광익 = 12월 2일 딸 결혼 △ 김석운 = 11월 17일 모친상 △ 김지연 = 12월 17일 차남 결혼 △ 김진명 = 12월 28일 모친상 △ 이원익 = 중앙일보 미주동포 신인문학상 시조부문 수상 △ 장인철 = 1월 28일 장남 결혼 △ 태기섭 = 2월 10일 장녀 결혼

〈28회〉

△ 강재화 = 12월 24일 부친상 △ 김영철 = 1월 5일 모친상 △ 김용진 = 1월 31일 빙부상 △ 김중기 = 1월 25일 모친상 △ 노문호 = 3월 3일 장녀 결혼 △ 손영수 = 12월 16일 차남 결혼 △ 양승목 = 2월 13일 모친상 △ 어청우 = 12월 30일 아들 결혼 △ 오현석 = 1월 20일 부친상 △ 옥상곤 = 3월 25일 장녀 결혼 △ 이승하 = 2월 25일 빙모상 △ 이용남 = 12월 30일 장녀 결혼 △ 이원용 = 1월 27일 빙모상 △ 이정철 = 12월 10일 장남 결혼 △ 이진희 = 1월

22일 부친상 △ 정성목 = 12월 31일 모친상 △ 정인식 = 12월 23일 장녀 결혼 △ 정해영 = 12월 17일 부친상 △ 허대석 = 2월 3일 아들 결혼

〈29회〉

△ 김대욱 = 12월 9일 차남 결혼 △ 김영기 = 2월 25일 모친상 △ 김영상 = 1월 19일 장남 결혼 △ 김영희 = 2월 3일 장남 결혼 △ 설동일 = 2월 14일 부친상 △ 손태권 = 11월 25일 장남 결혼 △ 손홍근 = 12월 1일 아들 결혼 △ 신현수 = 12월 3일 장녀 결혼 △ 오세용 = 3월 11일 장남 결혼 △ 이 양 = 전 부산대 수학과 교수, '2018년 앨버트 벨슨 마르퀴즈 평생공로상' 수상 △ 이 용남 = 2월 3일 장녀 결혼 △ 이인성 = 2월 25일 모친상 △ 조승제 = 2월 3일 차녀 결혼 △ 장 만 = 2월 3일 장녀 결혼 △ 최형림 = 2월 27일 모친상 △ 한기준 = 1월 20일 차남 결혼

〈30회〉

△ 공영호 = 12월 30일 장남 결혼 △ 김병기 = 1월 14일 장남 결혼 △ 김순구 = 2월 3일 장녀 결혼 △ 김인수 = 1월 27일 장녀 결혼 △ 김종진 = 1월 27일 빙부상 △ 노영범 = 11월 16일 부친상 △ 노희석 = 1월 13일 자녀 결혼 △ 명호준 = 11월 23일 모친상 △ 문장호 = 12월 9일 차남 결혼 △ 박홍식 = 1월 5일~20일 개인전 △ 서국태 = 12월 23일 장남 결혼 △ 서민석 = 11월 14일

부친상 △ 손홍익 = 1월 31일 모친상 △ 송치근 = 2월 16일 빙모상 △ 신교선 = 11월 25일 차남 결혼 △ 신구동 = 12월 24일 장녀 결혼 △ 엄창현 = 2월 14일 모친상 △ 우홍제 = 2월 25일 모친상 △ 윤광식 = (주)유엠아이 이사, 11월 23일 한국압력기기공학회 기술상 금상 수상 △ 이상욱 = 1월 20일 장녀 결혼 △ 이수석 = 12월 27일 빙부상, 3월 10일 장녀 결혼 △ 이원경 = 1월 31일 빙부상 △ 이호준 = 12월 8일 부친상 △ 전대열 = 1월 28일 장남 결혼 △ 정경목 = 12월 31일 모친상 △ 정병호 = 3월 4일 장녀 결혼

〈33회〉

△ 공진우 = 11월 27일 빙모상

〈34회〉

△ 김성하 = 1월 28일 차남 결혼 △ 남현우 = 1월 16일 부친상 △ 문종철 = 12월 16일 부친상 △ 박광오 = 12월 8일 부친상 △ 이용석 = 1월 27일 아들 결혼

〈38회〉

△ 이철수 = 1월 17일 모친상

〈41회〉

△ 강태수 = 2월 10일 부친상 △ 성찬기 = 3월 8일 부친상 △ 원태용 = 11월 30일 모친상 △ 이경석 = 12월 7일 모친상 △ 전효진 = 2월 28일 부친상

모교발전기금 개인별 기탁 현황(본부)

2017년 12월 31일까지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故김근준	(1회)	100만원	김성찬	(12회)	50만원	김승현	(17회)	100만원	박석도	(18회)	20만원	김문관	(22회)	20만원	이명철	(25회)	100만원	송명석	(28회)	20만원	김종휘	(30회)	100만원
김희철	(3회)	30만원	김수원	(12회)	10만원	김용구	(17회)	100만원	박준성	(18회)	20만원	김성재	(22회)	50만원	강영녕	(26회)	200만원	엄보용	(28회)	100만원	김창근	(30회)	30만원
송두호	(3회)	1000만원	김용호	(12회)	10만원	김용남	(17회)	10만원	황광건	(18회)	200만원	김우홍	(22회)	300만원	권중대	(26회)	100만원	엄재홍	(28회)	200만원	김해근	(30회)	200만원
김주호	(4회)	20만원	김우성	(12회)	10만원	김조일	(17회)	10만원	김영범	(19회)	10만원	김일준	(22회)	30만원	김두찬	(26회)	100만원	옥상근	(28회)	200만원	김현태	(30회)	100만원
박석만	(4회)	20만원	김중수	(12회)	50만원	김준연	(17회)	100만원	김경재	(19회)	100만원	김장근	(22회)	200만원	김상현	(26회)	500만원	옥준원	(28회)	100만원	박동욱	(30회)	50만원
박흥기	(4회)	30만원	김종원	(12회)	10만원	김준위	(17회)	100만원	김문기	(19회)	20만원	김진영	(22회)	100만원	김우갑	(26회)	50만원	윤경섭	(28회)	200만원	박원호	(30회)	100만원
양종학	(4회)	300만원	김종일	(12회)	10만원	김지창	(17회)	30만원	김봉호	(19회)	500만원	김학근	(22회)	1000만원	김중우	(26회)	200만원	이경포	(28회)	200만원	박재백	(30회)	30만원
장수호	(4회)	100만원	김진갑	(12회)	20만원	김창운	(17회)	300만원	김삼도	(19회)	10만원	노세현	(22회)	260만원	김태권	(26회)	10만원	이만수	(28회)	200만원	박정태	(30회)	30만원
정순모	(4회)	200만원	김철기	(12회)	100만원	김태호	(17회)	20만원	김석윤	(19회)	20만원	민훈기	(22회)	10만원	김형(26회)	200만원	이만재	(28회)	100만원	박철우	(30회)	100만원	
정인조	(5회)	100만원	김준광	(12회)	10만원	김효남	(17회)	10만원	김양근	(19회)	50만원	박상갑	(22회)	50만원	김호영	(26회)	200만원	이승하	(28회)	100만원	서강태	(30회)	110만원
김윤용	(6회)	10만원	김효구	(12회)	10만원	문석웅	(17회)	50만원	김영우	(19회)	100만원	박언표	(22회)	100만원	박권병	(26회)	200만원	이원용	(28회)	100만원	서민석	(30회)	60만원
나오연	(6회)	100만원	남기용	(12회)	1000만원	박가식	(17회)	100만원	김정국	(19회)	10만원	박재상	(22회)	2000만원	박상호	(26회)	1550만원	이원철	(28회)	400만원	서복현	(30회)	100만원
노재형	(6회)	10만원	박영윤	(12회)	10만원	박신도	(17회)	200만원	김중기	(19회)	10만원	박재인	(22회)	50만원	박재욱	(26회)	500만원	임재덕	(28회)	100만원	서재원	(30회)	30만원
오영은	(6회)	200만원	박용운	(12회)	10만원	박영두	(17회)	20만원	김철호	(19회)	100만원	손연모	(22회)	100만원	배용호	(26회)	50만원	정성목	(28회)	200만원	서하수	(30회)	200만원
이길성	(6회)	30만원	박정윤	(12회)	10만원	박영일	(17회)	10만원	남기진	(19회)	100만원	유재진	(22회)	1000만원	성재업	(26회)	50만원	정영주	(28회)	50만원	석대식	(30회)	30만원
이희문	(6회)	30만원	박종정	(12회)	100만원	박인사	(17회)	100만원	박갑진	(19회)	30만원	이동열	(22회)	100만원	성재일	(26회)	200만원	정해영	(28회)	100만원	송영환	(30회)	100만원
임경택	(6회)	10만원	박창수	(12회)	30만원	박재구	(17회)	20만원	박동화	(19회)	300만원	장무성	(22회)	100만원	양준영	(26회)	50만원	최강호	(28회)	500만원	송한식	(30회)	30만원
장재수	(6회)	20만원	안상직	(12회)	30만원	박종구	(17회)	100만원	박상식	(19회)	50만원	장성복	(22회)	1000만원	엄윤섭	(26회)	100만원	한명재	(28회)	200만원	신범주	(30회)	30만원
정건용	(6회)	10만원	안영규	(12회)	20만원	박창홍	(17회)	100만원	박종화	(19회)	100만원	장성덕	(22회)	1000만원	왕정일	(26회)	100만원	한수범	(28회)	50만원	신영주	(30회)	30만원
정상철	(6회)	30만원	안영배	(12회)	10만원	백철균	(17회)	10만원	성낙출	(19회)	100만원	장영근	(22회)	100만원	이경호	(26회)	100만원	허영철	(28회)	200만원	신윤원	(30회)	30만원
정세동	(6회)	20만원	엄태섭	(12회)	30만원	서재홍	(17회)	20만원	신윤철	(19회)	30만원	정해진	(22회)	50만원	이규생	(26회)	70만원	김기영	(29회)	50만원	안중화	(30회)	100만원
최상해	(6회)	10만원	오세정	(12회)	20만원	서정승	(17회)	200만원	안정모	(19회)	20만원	조윤재	(22회)	200만원	이상원	(26회)	200만원	김대욱	(29회)	3000만원	오경태	(30회)	10만원
허택	(6회)	30만원	옥계한	(12회)	100만원	손성근	(17회)	200만원	이상달	(19회)	100만원	최학봉	(22회)	100만원	이순철	(26회)	50만원	김도태	(29회)	30만원	왕순모	(30회)	30만원
이우호	(7회)	50만원	왕한균	(12회)	100만원	송유근	(17회)	30만원	이용만	(19회)	10만원	허범도	(22회)	1000만원	이영덕	(26회)	100만원	김석윤	(29회)	30만원	유영록	(30회)	10만원
故공상태	(8회)	100만원	윤성희	(12회)	12만원	송인문	(17회)	100만원	이용홍	(19회)	1000만원	김동욱	(23회)	200만원	정거돈	(26회)	100만원	김영기	(29회)	10만원	유재일	(30회)	10만원
구본섭	(8회)	100만원	이수영	(12회)	10만원	신정아	(17회)	10만원	이장희	(19회)	100만원	김동욱	(23회)	50만원	정국근	(26회)	100만원	김인술	(29회)	100만원	윤기승	(30회)	50만원
김봉길	(8회)	500만원	이승훈	(12회)	10만원	신종	(17회)	30만원	장홍의	(19회)	500만원	김상영	(23회)	50만원	정익교	(26회)	100만원	김정임	(29회)	100만원	윤성덕	(30회)	1000만원
박동열	(8회)	1000만원	이용언	(12회)	50만원	안정의	(17회)	30만원	최연근	(19회)	10만원	김영기	(23회)	1200만원	조일재	(26회)	50만원	김종명	(29회)	30만원	윤인태	(30회)	50만원
안종렬	(8회)	100만원	이원우	(12회)	100만원	여성열	(17회)	10만원	최학익	(19회)	10만원	김용기	(23회)	20만원	최수일	(26회)	50만원	박동일	(29회)	50만원	윤준수	(30회)	30만원
윤상현	(8회)	10만원	임정명	(12회)	30만원	오태식	(17회)	100만원	황태경	(19회)	20만원	김용선	(23회)	30만원	하원규	(26회)	500만원	박동혁	(29회)	200만원	이광봉	(30회)	30만원
이윤조	(8회)	100만원	정대식	(12회)	10만원	우기남	(17회)	50만원	황태원	(19회)	1000만원	김정록	(23회)	20만원	한원우	(26회)	100만원	박상길	(29회)	100만원	이광희	(30회)	20만원
장학표	(8회)	100만원	정영철	(12회)	200만원	윤성욱	(17회)	500만원	황호균	(19회)	100만원	김중광	(23회)	100만원	하주근	(26회)	50만원	박성철	(29회)	200만원	이기환	(30회)	100만원
김영국	(9회)	10만원	최병준	(12회)	10만원	윤수상	(17회)	30만원	강석근	(20회)	300만원	김태용	(23회)	100만원	26회 구형회	100만원	박인평	(29회)	50만원	이명건	(30회)	30만원	
김중호	(9회)	50만원	최병훈	(12회)	10만원	이건우	(17회)	100만원	강영환	(20회)	10만원	김현	(23회)	30만원	김진화	(27회)	100만원	배진영	(29회)	100만원	이영준	(30회)	30만원
김태영	(9회)	10만원	최신일	(12회)	20만원	이성훈	(17회)	30만원	김세준	(20회)	100만원	노영배	(23회)	200만원	류세결	(27회)	10만원	서공운	(29회)	30만원	이인길	(30회)	50만원
박당희	(9회)	20만원	탁혜정	(12회)	10만원	이세복	(17회)	1000만원	김원율	(20회)	10만원	박수갑	(23회)	100만원	문두찬	(27회)	500만원	송희태	(29회)	50만원	이학수	(30회)	700만원
성백규	(9회)	10만원	하일민	(12회)	30만원	이수창	(17회)	100만원	김일석	(20회)	100만원	서영수	(23회)	100만원	윤종락	(27회)	10만원	양승오	(29회)	80만원	이한수	(30회)	20만원
신석현	(9회)	20만원	한춘배	(12회)	10만원	이우기	(17회)	10만원	김태선	(20회)	300만원	서한현	(23회)	10만원	이요섭	(27회)	30만원	윤종경	(29회)	150만원	이환기	(30회)	30만원
이대규	(9회)	100만원	김정성	(13회)	30만원	이일영	(17회)	10만원	김태영	(20회)	500만원	손군식	(23회)	100만원	이현(27회)	10만원	윤형근	(29회)	50만원	인준승	(30회)	20만원	
이영구	(9회)	10만원	이경재	(13회)	100만원	이정보	(17회)	10만원	김형오	(20회)	1000만원	송충승	(23회)	50만원	한수길	(27회)	200만원	이경호	(29회)	100만원	임영수	(30회)	50만원
한동대	(9회)	50만원	이정명	(13회)	30만원	이종길	(17회)	10만원	노기태	(20회)	500만원	신상희	(23회)	100만원	27회 동기회(60명)		이석조	(29회)	500만원	임영호	(30회)	30만원	
황영선	(9회)	20만원	정철기	(13회)	30만원	이종혁	(17회)	100만원	(경고 직접 기부)			안병윤	(23회)	20만원		2740만원	이승호	(29회)	100만원	장영조	(30회)	30만원	
김상국	(10회)	20만원	황일인	(13회)	100만원	이형우	(17회)	100만원	박병철	(20회)	500만원	안병화	(23회)	20만원	LA지역 27회 동기회(4명)		이종포	(29회)	50만원	정영호	(30회)	100만원	
김선동	(10회)	20만원	김경일	(15회)	1000만원	장승구	(17회)	200만원	박형준	(20회)	100만원	안성민	(23회)	100만원		400만원	임광열	(29회)	100만원	정승진	(30회)	30만원	
김성규	(10회)	50만원	서정욱	(15회)	10만원	전경명	(17회)	100만원	배서호	(20회)	200만원	옥지범	(23회)	300만원	구영소	(28회)	500만원	임상훈	(29회)	50만원	정재화	(30회)	60만원
박재경	(10회)	10만원	손부홍	(15회)	500만원	정량부	(17회)	100만원	백문찬	(20회)	100만원	원인건	(23회)	200만원	김관세	(28회)	100만원	전상화	(29회)	100만원	천성일	(30회)	10만원
박종문	(10회)	20만원	이상모	(15회)	30만원	정태일	(17회)	100만원	신원기	(20회)	200만원	육병천	(23회)	20만원	김기태	(28회)	300만원	장만	(29회)	100만원	최상호	(30회)	50만원
신대수	(10회)	20만원	임영길	(15회)	100만원	정해표	(17회)	10만원	이실근	(20회)	100만원	윤순현	(23회)	200만원	김만중	(28회)	300만원	정길	(29회)	100만원	최영규	(30회)	20만원
오강욱	(10회)	200만원	하정부	(15회)	10만원	제양성	(17회)	50만원	장상배	(20회)	300만원	이동성	(23회)	100만원	김명영	(28회)	200만원	정성훈	(29회)	100만원	최우철	(30회)	2억 500만원
이봉원	(10회)	10만원	한해수	(15회)	1000만원	조용운	(17회)	30만원	장춘식	(20회)	10만원	이문희	(23회)	200만원	김명준	(28회)	100만원	조승제	(29회)	100만원	(2억 경고 직접 기부)		
이언희	(10회)	20만원	강종국	(16회)	10만원	조종언	(17회)	500만원	정규식	(20회)	300만원	이병찬	(23회)	300만원	김부윤	(28회)	100만원	황유영	(29회)	30만원	최재봉	(30회)	100만원
임호웅	(10회)	20만원	강진중	(16회)	10만원	천용광	(17회)	10만원	정용환	(20회)	300만원	이상수	(23회)	50만원	김상장	(28회)	100만원	강석철	(30회)	30만원	추태명	(30회)	10만원
전영대	(10회)	20만원	김상호	(16회)	100만원	최만식	(17회)	5000만원	차상근	(20회)	200만원	이충호	(23회)	100만원	김용석	(28회)	110만원	권영인	(30회)	30만원	하규양	(30회)	100만원
정승석	(10회)	50만원	박춘호	(16회)	10만원	최성호	(17회)	1000만원	채경석	(20회)	200만원	전영조	(23회)	200만원	김정우	(28회)	200만원	권용택	(30회)	50만원	하전근	(30회)	10만원
조양제	(10회)	1000만원	여성국	(16회)	10만원	추봉실	(17회)	10만원	최창해	(20회)	300만원	전원익	(23회)	30만원	김중섭	(28회)	100만원	구을석	(30회)	10만원	허영재	(30회)	30만원
허영오	(10회)	200만원	강주수	(17회)	10만원	허영수	(17회)	300만원	한기원	(20회)	100만원	정상건	(23회)	200만원	김중생	(28회)	250만원	김경수	(30회)	30만원	황철민	(30회)	100만원
공상기	(11회)	100만원	권경술	(17회)	100만원	허종언	(17회)	30만원	허규판	(20회)	1000만원	조현표	(23회)	50만원	김준배	(28회)	100만원	김기섭	(30회)	100만원	30회 울산동기회	450만원	
김재근	(11회)	30만원	김길호	(17회)	100만원	황중부	(17회)	10만원	허남균	(20회)	300만원	채행윤	(23회)	100만원	김준연	(28회)	200만원	김기수	(30회)	10만원	공광욱	(31회)	50만원
백연균	(11회)	30만원	김동수	(17회)	500만원	현태일	(17회)	100만원	강창수	(21회)	500만원	최인식	(23회)	50만원	김형진	(28회)	250만원	김기업	(30회)	50만원	공종렬	(31회)	12만원
심재룡	(11회)	120만원	김동조	(17회)	10만원	17회마산동기회(김무상)			김성환	(21회)	300만원	하복진	(23회)	20만원	김홍중	(28회)	100만원	김백수	(30회)	30만원	권해철	(31회)	12만원
김수현	(12회)	200만원	김두백	(17회)	10만원</																		

2017년도 회비 납부 현황

- 회장 이병찬 3,000만원
- 자문위원
송규정(16) 김길제(18) 조성재(18) 남진현(19)
박용덕(20) 박홍조(22) 이상 100만원
- 부회장
김영기(23) 박종찬(25) 송정규(25) 박상호(26)
박성철(29) 김현태(30) 이양결(41) 이상 200만원
- 사무국 분담금 낸 기수
: 15회, 17회, 18회, 19회, 20회, 21회, 22회, 23회, 24회, 25회, 26회, 27회, 28회, 29회, 30회, 31회, 32회, 33회, 34회, 36회, 37회, 39회, 40회, 41회, 42회, 43회, 49회 (2016년 분 - 36, 38회)
- 동아후원금 낸 기수
: 15회, 17회, 18회, 19회, 20회, 21회, 23회, 24회, 25회, 26회, 27회, 29회, 30회, 31회, 32회, 33회, 34회, 36회, 37회, 39회, 40회, 41회, 42회, 43회, 49회 (2016년 분 - 36, 38회)
- 동창회 발전기금(총명부 발행회사) 1,000만원 (2016년 3천만원)
- 51회 홈커밍 특별회비 100만원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김정택(31회)	12만원	손정수(31회)	24만원	조성근(31회)	12만원	김범영(33회)	3000만원	김영훈(36회)	100만원	한성호(39회)	10만원	이준석(41회)	10만원	뉴질랜드동창회		50만원	
김중호(31회)	120만원	손진기(31회)	12만원	조영기(31회)	24만원	김재선(33회)	100만원	김철원(36회)	100만원	김영진(40회)	10만원	임병호(41회)	10만원	부산교통공사용마회			
김진국(31회)	12만원	신상하(31회)	12만원	조현우(31회)	12만원	김중인(33회)	12만원	이동희(36회)	30만원	이영철(40회)	10만원	장익조(41회)	10만원			100만원	
김태근(31회)	100만원	신수열(31회)	12만원	천장호(31회)	12만원	류장근(33회)	100만원	임창섭(36회)	10만원	강병오(41회)	10만원	정필성(41회)	10만원	사하지역동창회		300만원	
김판덕(31회)	12만원	심규열(31회)	12만원	최경우(31회)	32만원	류홍영(33회)	30만원	정인석(36회)	30만원	강석희(41회)	10만원	조원호(41회)	10만원	샌프란시스코동문		50만원	
김현주(31회)	12만원	심재홍(31회)	12만원	최봉근(31회)	12만원	박명진(33회)	5500만원	김길영(37회)	20만원	김기영(41회)	10만원	찬성원(41회)	10만원	(9회 조동훈, 윤중대, 11회 추기			
김현율(31회)	12만원	안기수(31회)	24만원	최상규(31회)	12만원	박성병(33회)	10만원	김원범(37회)	10만원	김범성(41회)	20만원	최호열(41회)	10만원	석, 박병호, 12회 최수용, 14회			
남기태(31회)	200만원	안우현(31회)	60만원	최재호(31회)	12만원	백수현(33회)	50만원	박용진(37회)	50만원	김봉준(41회)	30만원	추교용(41회)	30만원	정소용, 김철규, 21회 손석보,			
남철우(31회)	60만원	오민일(31회)	300만원	최진섭(31회)	200만원	서재영(33회)	100만원	양귀수(37회)	10만원	김형률(41회)	50만원	허치회(41회)	50만원	양경현, 정갑식, 김수라, 하재			
류명석(31회)	100만원	오용환(31회)	120만원	최해영(31회)	12만원	송종현(33회)	100만원	조영규(37회)	20만원	남관희(41회)	30만원	홍동훈(41회)	30만원	청, 23회 방기준, 26회 육승주			
박경수(31회)	200만원	윤정수(31회)	20만원	최효식(31회)	60만원	신용준(33회)	10만원	홍병일(37회)	10만원	류지섭(41회)	30만원	홍석우(41회)	50만원	시카고동문		107만원	
박석기(31회)	100만원	이병태(31회)	100만원	하명수(31회)	30만원	이순환(33회)	1000만원	홍원석(37회)	10만원	박정기(41회)	20만원	41회 산악회	30만원	(22회 김정수 회장 외)			
박석두(31회)	100만원	이석우(31회)	12만원	하학열(31회)	120만원	이형근(33회)	50만원	황태윤(37회)	10만원	백선민(41회)	10만원	이용상(43회)	10만원	용마회		190만원	
박인정(31회)	12만원	이승진(31회)	12만원	한광규(31회)	12만원	정인실(33회)	10만원	37회 동기회	200만원	변영호(41회)	10만원	김진수(43회)	30만원	(시창:91만, 사하구창:45			
박종규(31회)	100만원	이재웅(31회)	24만원	하일현(31회)	12만원	최영두(33회)	12만원	곽동열(38회)	10만원	신동진(41회)	20만원	최성필(43회)	40만원	만, 서구창:54만)			
박희임(31회)	12만원	장건호(31회)	12만원	홍성수(31회)	120만원	한상봉(33회)	100만원	박준표(38회)	20만원	안광근(41회)	10만원	44회 동기회	500만원	재동경문회		200만원	
배정우(31회)	12만원	장성호(31회)	12만원	김창범(32회)	20만원	34회 동기회	1000만원	오희진(38회)	10만원	유수호(41회)	10만원	장성익(45회)	50만원	김정옥(전 경중 재직 교사)			
서동근(31회)	12만원	장재훈(31회)	12만원	박영욱(32회)	30만원	오상민(34회)	30만원	이중명(38회)	300만원	윤성보(41회)	20만원	47회 동기회(26명)	300만원	100만원			
서수교(31회)	100만원	장명우(31회)	300만원	이병준(32회)	100만원	이재원(34회)	500만원	김도경(39회)	20만원	윤성환(41회)	10만원	박종현(50회)	100만원	남석희(전 경고 재직 교사)			
서태교(31회)	100만원	정 문(31회)	120만원	최춘호(32회)	100만원	이진호(34회)	200만원	김윤홍(39회)	30만원	이경석(41회)	50만원	김경원(54회)	10만원	30만원			
손영태(31회)	1억원	정용정(31회)	50만원	허 규(32회)	10만원	김동인(35회)	10만원	김진호(39회)	20만원	이경호(41회)	30만원	故표종빈(64회)	500만원	신길송(기수불명)18만원			
(경고 직접 기부)		정인화(31회)	12만원	허재창(32회)	30만원	김병수(35회)	10만원	박인석(39회)	100만원	이양결(41회)	200만원	故박태현 은사(박치호, 27회)		기 타(이름불명) 3만원			
성오용(31회)	12만원	정정남(31회)	132만원	계동원(33회)	30만원	이남기(35회)	10만원	양정교(39회)	10만원	이종민(41회)	10만원	1000만원					
손은정(31회)	12만원	정철수(31회)	500만원	김기산(33회)	60만원	황용순(35회)	10만원	이영수(39회)	10만원	이주하(41회)	30만원	김해지역동창회	300만원	- 합계 : 13억2,457만원			

모교발전기금 개인별 기탁 현황(총동창회)

2018년 1월 1일 ~ 2018년 3월 5일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김기산(33회)	100,000	※기금모금 기간 중 경남고에 직접 기부하신 분	손영태(31회)	1억원(2013년 7월 17일)										
김지수(43회)	120,000	노기태(20회) 500만원(2016년 12월 16일)												
		최우철(30회) 2억원(2014년 4월 17일, 2015년 4월 30일) - 발전위원회 기부 500만원 별도												
- 소계 :	22만원		- 총 누계금액 :	13억2,479만원										



22회 동기회 졸업 50주년 기념 행사



| 일시 |
2018년 4월 22일(일) 18:00

| 장소 |
해운대그랜드호텔 컨벤션홀 2F

• 동기회장 **장성덕** • 재경회장 **최호림**

2017년도 회보구독료 납부자 명단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 큰 힘이 됩니다

* ()는 선납부자 ● 총 2,629명 2017. 12. 31. 기준

경남중고동창회보는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와 얼마 되지 않는 광고료 수입만으로 제작·우편발송 되고 있습니다. 2018년 구독료(연 3만원)를 내주시면 회보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료 보내주실 계좌 안내]

부산은행 : 101-2053-6722-04

예금주 : 경남중고 총동창회 박종찬

(회보와 함께 보내드리는 지로용지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3회(8명)
김용해 김희철 문병집 송두호 신현익 윤태원 이안규 하덕모

4회(11명)
김경식 김주호 김희수 송호길 양종학 이남규 장수호 정순도 정치근 조성일 황갑생

5회(18명)
김근석 김석호 김명복 김은규 김인택 김재관 김진휴 박장후 박종구 유병한 이경옥 이분기 정인조 주법국 진도영 최영철 최원구 흥관식

6회(25명)
김상엽 김종철 김태곤 김태환 박기복 배문수 배종권 변영수 손용수 오영은 유상환 이강윤 이길상 이상기 임경택 정진용 정경규 정덕환 정승화 조윤승 최갑영 최석원 최인갑 최한병 허광팔 (이상기 2018년)

7회(31명)
강병희 강창구 구택용 김갑성 김광옥 김명관 김삼현 김용우 김종순 김진홍 김태배 노상석 류상남 박영섭 박환배 배건식 배종현 소진은 송의득 양종환 오동환 오장은 윤진현 이도환 이등우 이창범 임성극 임의택 조덕찬 허근수 허종호

8회(37명)
강성태 구본섭 김봉길 김영철 김명환 김재범 김진석 김형벽 문창화 박우상 박재범 박희욱 배기현 배주원 백낙오 서진근 손세일 안종열 엄탁양 이운조 이정운 이종택 이준혁 이준기 이현문 이호수 이희순 장혁표 전영배 정금출 조윤제 최경태 최낙병 최윤식 최재현 홍광수 홍기성 (최경태 2018년)

9회(30명)
김경희 김기관 김기학 김성탁 김영국 김영문 김이도 김종호 김 청 노도현 박영복 박화철 신용익 안규현 안병환 원종희 유금열 유병철 윤성태 이주환 장동근 전인규 정 록 조규양 조이호 지삼봉 최성욱 최위철 하재환 한동대

10회(51명)
강희운 고용재 김계순 김기호 김동민 김상규 김선동 김성규 김연수 김정학 김종술 김창덕 김평순 박경수 박재경 박철민 신규태 심영환 오강욱 윤영태 윤우성 윤재모 이근태 이민섭 이봉원 이상배 이승영 이승준 이언희 이의도 이재순 이정호 이창복 이현수 임정우 장기상 장창구 전영대 정무길 정종만 정 훈 조길수 조상진 조종제 진 강 최병도 최성열 최순진 하영수 허영백 황정조 (김종술 2018년)

11회(81명)
강병희 공상기 광정출 광태업 권병용 김기주 김무봉 김병기 김삼진 김성규 김수정 김영식 김옥실 김용만 김용정 김원형 김윤택 김인섭 김재환 김종수 김태호 김학수 김항곤 김효민 남호현 문정오 박관호 박성우 박수경 박용관 박창순 박태오 박희태 배상천 백금덕 서영호 서지운 서진갑 신유기 심재룡 심재홍 양수택 염한호 오길훈 오정광 유흥종 유흥수 윤재관 윤태원 이강우 이계찬 이근우 이 명 이상석 이상태 이상학 이상훈 이상길 이세영 이재진 이종백 이종범 이종주 임근호 장대철 장세원

장영권 정은표 제정오 조양현 지창호 천금준 천동조 최동영 최득호 최성욱 최창욱 최태원 하영득 하종선 현정준 (박희태 2019년, 윤태원, 이종선 2018년)

12회(83명)
강본순 강창수 공 문 구진웅 구창희 권시길 권인호 김기인 김동열 김두수 김명희 김봉성 김봉하 김부생 김부환 김상렬 김석곤 김선일 김수원 김영수 김우성 김익도 김일준 김종련 김종일 김지희 김진갑 김현주 김홍래 문재권 박문기 박보국 박상도 박용운 박정운 박종정 박호민 배기원 배병일 배종섭 변동만 서병기 손제준 심용치 안상직 안영규 안영배 안용득 엄태섭 오세정 오수봉 왕환근 윤학근 이규만 이상현 이상대 이수영 이승문 이승태 이영환 이용인 이용희 이원우 이재원 이현달 임창완 장동석 정광삼 정대식 정수복 정영철 정호중 조한기 조홍래 차민도 천금태 최경균 최병훈 추영재 탁해정 한춘배 허은도 홍두표

13회(108명)
강귀동 강영삼 고승구 고시준 구덕건 구문광 권영계 권영채 김동호 김만철 김무조 김민철 김상치 김승언 김신부 김영길 김영호 김일수 김장웅 김정균 김정일 김정태 김종박 김종의 김지득 김한규 김형태 김홍석 김홍수 김홍철 노경규 문 창 박길만 박민보 박안남 박양웅 박영주 박원길 박일웅 박정웅 박종탁 박주열 박진태 박홍일 박홍표 배대결 배정운 백길오 변종길 서시주 서영웅 성태경 송신의 송창식 신동배 신 명 신민철 신하근 안준수 양길승 오원수 오한수 윤기갑 윤태호 이경재 이근모 이명진 이상문 이상택 이성빈 이응재 이정명 이종달 이준범 이창성 이창열 이창호 이철세 이태랑 이학수 임소철 임영홍 임홍조 장영길 장용웅 전준신 정로상 정영화 정은섭 정종현 제병민 조병성 조용갑 조준택 조철현 차영일 최상호 최성욱 최영완 최태환 추지석 한병우 한병조 한진희 허갑도 허 훈 황일인 황정대 (이경재 2019년)

14회(76명)
강민제 강희주 김경수 김무남 김성부 김영대 김용균 김재도 김종수 김창기 김형수 김화욱 남기우 노수덕 류종일 문운용 박남조 박만인 박병선 박순일 박진재 박철수 박해동 박효건 반성호 백태우 서정환 손광용 손영목 송성달 신기석 신용진 신준호 신현호 오태홍 유정호 윤영현 윤정남 윤태규 이경우 이광언 이길미 이동식 이명재 이수남 이승우 이재돈 이창화 이호근 이훈일 장삼식 장우일 전상배 정선언 정용마 조광명 조규향 조기정 조상원 조영봉 주갑진 진선대 진성태 차상복 최낙섭 최병태 최성용 최종락 하문수 하찬봉 한규환 한수길 허 증 황수길 황원재 황홍석

15회(89명)
강무상 강부송 강민조 강부부 강창일 고석기 권승부 김경일 김경희 김길영 김대영 김상차 김소현 김승형 김창열 김양정 김영훈 김옥규 김윤배 김정환 김종태 김종한 김준근 김중광 김충식 김관열 김학현 김황영 남기주 남암순

명호근 박복만 박영길 박영무 박찬호 박철양 박호가 배성훈 배 훈 서영진 손부홍 신용기 신현영 안경숙 오봉석 윤우경 이선공 이승남 이영정 이의일 이정부 이종명 이종수 이종일 이종희 이철성 이필언 임영길 장봉고 장종호 장호조 정영선 정옥종 정준수 조규중 조영일 조일랑 조진환 주정중 천신일 최광웅 최무길 최병우 최 욱 최원수 최진모 최태지 하영수 하정부 한도근 한진출 한해수 허경도 허광길 허종택 홍익찬 황건세 황경남 황중부 (김황영 2018년, 임영길 2022년)

16회(85명)
강동관 강상관 강영주 강원경 강종국 강진중 권명석 권복술 금성구 김광용 김탁찬 김상웅 김상호 김용환 김응진 김일규 김정우 김 조 김종택 김철근 김충길 김현호 김형석 노상현 노원소 민신웅 박두영 박소웅 박수면 박영기 박영수 박용일 박종덕 박종봉 박준호 박 흥 방수근 배정희 서정호 성기식 손송방 손용석 손한조 송규정 송자문 안국정 양휘부 여성국 영광해 영광지 오형철 윤세진 윤효주 이경환 이길홍 이명수 이무근 이무영 이방소 이성남 이성인 이양근 이영재 이종승 이종철 이재언 이철수 이철원 이효일 임승언 임 실 정영일 정우광 정원철 정일성 조길우 조윤일 조원제 채경일 최정일 하주열 하희진 한일랑 허 곤 황규호

17회(72명)
김정은 권경술 김길우 김길호 김동수 김부근 김상천 김성탁 김용구 김용남 김용정 김원일 김재봉 김종영 김준연 김준위 김중성 김지창 김창은 김충겸 김효남 남궁성은 노동섭 박기식 박신도 박영일 박영호 박인사 박재구 박종구 박 찬 박창홍 박홍식 서정승 서창석 송승구 송유근 송인문 송인창 신 종 신희규 심문섭 안정의 양상진 어윤대 오홍환 윤성욱 윤수성 이세복 이수원 이수창 이재형 이정보 이종혁 임우택 임정수 장길성 장승구 전경명 전대홍 전영부 정두호 정량부 정병렬 정용화 정태일 제양성 조준언 최성호 추봉실 하영수 허진행

18회(98명)
강대원 강덕용 강성태 강영호 강인섭 강정일 고병현 김경걸 김경권 김경화 김광웅 김귀언 김기섭 김길재 김병호 김사권 김상곤 김 석 김성건 김순곤 김영국 김영욱 김옥길 김용기 김재창 김정래 김종상 김종철 김지호 김형윤 김홍태 나정현 노정규 류종우 문창열 문희억 박건태 박기일 박기주 박노숙 박대웅 박덕봉 박동우 박상욱 박석도 박선동 박성철 박 용 박용주 박용혁 박종구 박종만 박준성 박현태 박호영 백승래 서부원 서재봉 설현기 손찬규 신인환 안창범 양세수 오재동 우원호 윤봉수 이근희 이덕수 이영범 이종남 이형석 임재영 전기준 전병희 전상곤 전영석 정우용 정재호 정대섭 조성재 좌경용 주상섭 차명석 천두갑 최 인 최재범 최진수 최희영 한광수 한기철 허도형 허만조 허성태 허영태 허태열 홍우재 홍창우 황광근

19회(109명)

강동원 강재욱 강준권 강환섭 공기주 권정덕 김경우 김경재 김덕규 김명수 김배호 김봉호 김석구 김석윤 김성욱 김순호 김명복 김영우 김영탁 김영태 김윤기 김인선 김일천 김재근 김정우 김중우 김진국 김진호 김철호 김형복 김 현 남진현 노덕현 노은영 노태규 문관진 박갑진 박상식 박성철 박준우 박차천 배무삼 배영구 백종무 서세복 서무관 선우일남 성나출 성환진 손말현 손철수 신동인 신봉문 신윤철 심영섭 심재구 안정모 양학기 오일환 오태수 유동구 유수상 윤영규 이근식 이명환 이병구 이상만 이상우 이상달 이상환 이용조 이용홍 이장희 이종명 이창도 이창돈 이창윤 이창흠 이춘만 임태원 장성규 장조훈 장홍의 전영석 정규병 정규영 정극수 정수남 정승수 정원찬 정윤영 정태을 조성환 조재운 주승돈 진수상 최경석 최병수 최정학 최희의 한명섭 한종환 합진복 허남걸 허홍욱 홍성봉 홍승표 황태경 황태원

20회(73명)
강기철 강병천 강부덕 강석근 강현진 금석주 김두영 김두환 김성환 김세준 김영철 김우홍 김일석 김정환 김조동 김종민 김진환 김찬만 김태영 김한원 김형기 김형오 남기석 노기태 독일진 문성채 문시영 민영기 민형기 박옥양 박용덕 박 준 박지오 배정호 배준태 백완근 백창열 서경석 석광택 손춘수 송상윤 신원기 심두수 안재상 양승태 양태운 여정호 오경석 유근준 윤병규 이실근 이영오 이종열 이현규 임성춘 임세호 장명길 장상배 전일준 정규식 정세현 정승창 조영철 조운태 차용환 최상인 최석립 최장하 최경중 최 철 한계정 허남근 홍순태

21회(111명)
강민우 강삼태 강수경 강욱형 강원태 강창수 강태순 공기화 구봉능 구정모 구현수 권오웅 김기현 김남규 김대웅 김병협 김부곤 김상덕 김상하 김영삼 김원일 김유건 김익수 김조영 김지호 김현태 김홍근 김황세 마상준 박명문 박명욱 박봉률 박상기 박성렬 박이운 박인협 박자민 박재선 박주용 박종건 방효상 배영일 배 일 변창섭 서덕수 서병문 성상철 성정근 송원경 신대운 안상갑 안승원 안채식 양병주 여환부 오대규 육화원 윤대회 윤상철 이동재 이동춘 이명환 이문수 이성집 이세형 이영상 이영철 이영훈 이익규 이재택 이재호 이재흠 이종규 이준성 이한석 이 혁 임경범 임정기 장정표 장 호 전기환 전우성 정상인 정연호 정영천 정정화 조상호 조성근 조용석 조하래 조현국 조호제 조희부 진영현 진영춘 차동민 최규용 최낙환 최동원 최민석 최수명 최원종 최은영 탁원명 하영준 한승현 한인환 허영도 허창수 황영실 황윤성

22회(99명)
강호일 고인준 구자룡 김광국 김대욱 김도살 김동명 김동욱 김동진 김명수 김무술 김석영 김성재 김성태 김세곤 김수열 김우홍 김원주 김일봉 김일준 김정곤 김정민 김종인 김진철 김창해 김철현 김학근 김해현 노평호 문성철

박승목 박인표 박재구 박재상 박준호 박찬명
 박철민 박호병 박홍조 배춘식 배호원 백봉주
 변대석 변종호 부창전 서경덕 손병용 손연모
 손용섭 송현준 안계환 안영수 안진환 오세길
 유재락 이경상 이민성 이병수 이상협 이성모
 이영화 이웅규 이윤제 이인규 이철웅 이춘식
 임강택 장광훈 장무성 장성덕 장성복 장영근
 정남식 정상수 정진식 정해진 조순태 조원호
 조장현 조홍기 주성민 주우실 최광욱 최성열
 최완식 최학봉 최호립 하성일 하현성 한근택
 한태길 한형우 허범도 허승조 허 언 허인석 홍
 순옥 홍태구 황영환 (문성철, 이경상 2018년)
23회(117명)
 감인홍 강구현 강동우 강창보 곽상인 구대용
 구영수 구자섭 김건일 김기열 김민상 김상수
 김상영 김상태 김석현 김영기 김영목 김영철
 김영철 김윤관 김익곤 김정목 김종배 김종훈
 김주찬 김중광 김대성 김대용 김대정 김태홍
 김택수 도명세 문명옥 문창호 박대동 박동현
 박무열 박문도 박수갑 박영호 박익상 박인권
 박창수 배종순 배준석 백창영 서승환 서영수
 송충승 신경재 신동규 신인근 신혜철 안경섭
 안범두 안병욱 안성민 안피진 오도준 유석산
 유원형 유진두 윤길원 윤병조 윤순현 윤종관
 윤태규 이강식 이강우 이대우 이택남 이동성
 이문희 이병찬 이부식 이상렬 이상수 이상운
 이수백 이승구 이승현 이승호 이영재 이용원
 이윤석 이인택 이정욱 이준석 이충호 장기원
 장동국 장백기 장병규 장찬규 전명식 전상대
 전영조 전원의 전재홍 정귀출 정동일 정상건
 정연철 정용호 정용성 조완재 조장대 조한용
 조현표 재행은 최영목 최인식 허복진 허근창
 허병상 홍영희 홍종기
(김상수 2018년, 이부식 2020년, 최영목 2018년)
24회(113명)
 강경환 강기중 강동우 강창홍 곽두희 곽재용
 구본열 구본준 구자용 김경남 김도인 김동운
 김동진 김만복 김명배 김무성 김봉용 김성득
 김성철 김승탁 김영만 김영민 김영범 김영식
 김윤수 김은호 김준기 김진윤 김태홍 김학성
 김한근 김현태 김효근 남진현 남창영 노상우
 문섭제 박근철 박극제 박병렬 박성표 박윤성
 박재선 박정문 박창종 박창호 박홍규 배종갑
 백운룡 변용준 변정규 서정덕 성춘기 손성호
 손세영 손종식 신병식 신장우 안상수 안태인
 안형수 양순권 여옥주 여철우 우흥하 원동희
 윤석만 윤재인 윤종철 윤지현 이대영 이동진
 이명규 이명복 이상찬 이상화 이 수 이영태
 이재능 이종구 이창무 임택철 임민호 장민재
 전용우 정동수 정동화 정명근 정명동 정무열
 정영석 조백인 조영수 조용화 조태홍 주승환
 주정권 주정규 지인덕 진병건 차문공 최석구
 최원주 최중식 최진우 최현규 대창업 한상렬
 허구연 홍용기 황규선 황성동 황성훈
(이수 2018년)
25회(93명)
 고명식 곽동원 권태용 김건우 김광배 김대현
 김덕우 김동진 김문국 김상경 김상수 김수룡
 김영명 김영수 김영호 김옥권 김옥철 김용경
 김용범 김우형 김윤수 김정학 김종국 김종만
 김종현 김진철 김청수 김대선 박기환 박평용
 박덕배 박동건 박맹우 박세철 박영하 박인동
 박종찬 박호철 배대관 서인진 서재규 석창재
 성경철 손국영 송세경 송영근 신경학 안희석
 양승욱 예종복 오양득 우진태 유용기 윤순기
 이근만 이대우 이동석 이동의 이명철 이민희
 이수영 이재욱 이창훈 이홍성 임무홍 임상택
 장세훈 전섬태 전영주 정길영 정신배 정윤철
 정철수 제영성 조광도 조대우 조 익 조판재
 주재길 차인환 최동하 최자환 최태동 탁준길
 태명산 하만진 하성룡 한석정 한준석 허영형
 허택 황호선 제25회동기회
26회(94명)
 강병원 강수남 강영녕 강영원 고석훈 권해국

김경철 김기성 김기표 김대규 김두천 김만석
 김상현 김수인 김영섭 김윤철 김재용 김종우
 김주병 김재영 김태규 김태년 김호용 민창현
 박경수 박경재 박동조 박두식 박상호 박오욱
 박원상 박원세 박의영 박재욱 박종국 박판기
 배용호 서현수 심백운 성재업 성재일 손욱호
 신기용 신대철 신동춘 신재호 심덕수 심송택
 양국명 왕정일 왕호석 윤경일 윤수현 윤승용
 이경호 이규용 이동일 이동희 이명진 이상돈
 이상원 이상만 이승두 이양춘 이용희 이우상
 이재봉 이정곤 이종욱 이주형 이창식 이희준
 임철호 장경재 장만욱 정대근 정의교 조만석
 조일제 주규철 최낙준 최명태 최성택 최성수
 최수일 최의수 최정환 하성봉 하원규 하주곤
 한창학 현동우 홍순하 홍정곤 (이상원 2019년)
27회(73명)
 강봉호 강대영 김강호 김경종 김경진 김광익
 김광철 김근우 김동조 김명기 김민수 김병욱
 김상문 김안석 김영삼 김우진 김원용 김종욱
 김진명 김준영 김태우 김호균 김홍근 문규상
 문두찬 문성기 박규욱 박승준 박영빈 박영종
 박정민 박종국 박찬석 박춘규 박지호 반정열
 배효택 서기룡 신한원 안종택 양태종 오봉인
 유성모 윤문태 윤일근 윤정환 윤종락 윤지환
 이기우 이민부 이성득 이요섭 이재택 이종찬
 이 현 이홍길 장창조 장해성 전 풍 정남근
 정우영 정재호 정철길 조봉관 조용수 조우영
 천우태 최인성 최휴진 박승주 하창우 한상훈
 한수길 (반정열 2019년)
28회(87명)
 강현안 구영소 권기택 권수원 김관세 김만중
 김부운 김선경 김시영 김양태 김용섭 김용희
 김익성 김인준 김준연 김창준 김철수 김태완
 김형진 김홍식 김홍국 노영배 노영현 리신호
 민교식 박병곤 박병준 박성권 박영규 박익철
 박종기 박진화 배명철 백선용 백영호 서기희
 손광락 신중현 안병직 안재홍 안 풍 양동욱 엄
 보용 엄재홍 엄호성 오현석 오호석 옥상곤 유
 봉수 유승일 윤경섭 윤대주 윤영수 윤일희 이
 민우 이양훈 이용남 이원철 이윤규 이윤태 이
 정권 이종대 이종만 이홍오 임익성 임태덕 전
 광병 전남식 전병철 전선국 전진학 정두현 정
 치영 정해영 조대현 조석태 주창석 최강호 최
 광해 최연삼 최연욱 최한웅 한명재 허남식 허
 명근 황인업 황장두
(안 통 2022년, 임익성 2018년)
29회(115명)
 강대용 강병철 강희철 곽대섭 권오영 금시환
 김광우 김기민 김기수 김기수 김기영 김기원
 김대영 김부근 김석윤 김성문 김세원 김연래
 김 영 김영훈 김영휘 김용환 김인술 김재현 김
 정규 김정암 김종권 김종명 김종운 김종진 김
 철오 김태완 김한수 김호성 김홍기 박광수 박
 국인 박근우 박동일 박동훈 박명섭 박병태 박
 상길 박성철 박인근 박창인 배진영 배현호 백
 성욱 사공운문 서봉교 서석철 서석희 서영학 손
 흥근 신용인 신현수 신홍기 안창홍 양석모 양
 승룡 양승오 염병배 오세용 윤석희 윤 옥 윤종
 경 윤형근 이남중 이범익 이상진 이석조 이승
 우 이승호 이영태 이재성 이정윤 이종포 이준
 환 이진욱 이호근 임무택 임채병 장강태 장
 만 장현경 전장화 전현수 정 길 정대현 정 란
 정성훈 정세영 정종기 정진환 정희용 조승제
 조진수 조창열 조한욱 주재휘 차의수 최범수
 최원락 최원형 최정만 최종열 하창환 하현태
 한만수 한승경 허광욱 현계성 황병근 황유명
(양승오 2018년)
30회(112명)
 강석철 구을석 구의본 구형건 권용택 김경섭
 김경수 김관일 김기섭 김기업 김백수 김성복
 김순구 김영욱 김영일 김영주 김영화 김용한
 김육성 김윤철 김인섭 김재수 김재일 김종진
 김진영 김치영 김해곤 김현태 남영효 노동춘
 도문성 박규완 박병규 박성태 박원호 박인달

박중배 박찬민 박철우 박희관 배경조 배기경
 배승한 서강태 서덕영 서민석 서복현 서현덕
 석대식 신교선 신구균 신원원 신인기 양문섭
 오경일 오광태 오홍조 옥유전 유재일 윤인태
 윤종순 이경우 이기환 이등근 이명건 이병구
 이상필 이성기 이수성 이인호 이종욱 이종훈
 이진걸 이철호 이태봉 이한수 이호걸 이호준
 이환기 인준승 장호영 장훈상 전대열 전은석
 전준호 정경목 정규홍 정기룡 정부광 정성원
 정승진 정영호 정용하 정태환 정해석 조경제
 조용업 진인태 채영재 최거훈 최병태 최영규
 최영식 최우철 최 욱 최진근 하규양 하영동
 하재명 한효용 허 준 황철민
31회(74명)
 고영호 공광욱 공종렬 김광수 김기정 김 만
 김명우 김민수 김시현 김영철 김영학 김정덕
 김종호 김태근 김현주 김형수 김효연 남기태
 남철우 노성현 류명석 문성일 박경수 박인정
 박종근 박종호 박춘열 박해성 박희암 배인환
 서규영 서동근 서정호 서태고 성락순 손영태
 손은정 손진기 신상하 신용필 심재구 안중수
 여상찬 오민일 옥봉근 옥치호 윤석중 이병태
 이상일 이승원 이승진 이원태 임종태 전병구
 정무석 정용정 정정남 정철수 조성근 조영기
 최문삼 최부영 최상규 최인목 최재식 최주홍
 최진섭 최혜영 하명수 하병관 하학렬 한영오
 허일현 홍성수
32회(41명)
 강기상 김동균 김영길 김종관 김창범 마승철
 민길식 박상학 박성철 박운대 박종구 박진원
 설원실 손병철 송승익 신국선 신명환 신철호
 신한국 양문섭 양성기 오경명 우득현 유성대
 윤성수 이관우 이병훈 이상봉 이상용 이인광
 이재수 임재근 정용운 정의주 정재종 정희찬
 최승찬 최종호 최춘호 황문찬 황성범
(송승익 2019년)
33회(52명)
 고창성 권영식 김계주 김기산 김명환 김법영
 김원일 김재도 김재선 김종인 김 철 김태훈
 김학성 김 혁 노경호 류장근 박명진 박성병
 박용득 박태종 배성만 배성수 백수현 서광기
 송성립 송종현 신용준 안동문 안영훈 안찬모
 오향선 이등근 이상진 이윤조 이은우 이진우
 이혜수 임명제 장정석 정영석 정영호 정인실
 조덕환 조영학 주기훈 지창근 최동호 최용남
 최홍원 황경원 황규태 황종순
34회(26명)
 곽수근 구본철 김동욱 김상갑 김상근 김상환
 김종업 김태하 김희영 노인선 문창영 박광오
 박기훈 박철욱 옥재명 이은수 이재완 이진호
 정노혁 정성근 정하태 조문국 조시형 진양호
 태일산 허지훈 (정노혁 2018년, 정하태 2019년)
35회(44명)
 김경환 김관우 김기철 김길호 김동일 김선택
 김우경 김우신 김주현 김홍곤 나동욱 모재현
 문흥근 박창석 백현호 서석권 상규원 성장용
 손석우 안종업 안창돈 오시영 유용욱 윤종호
 이기석 이남기 이영오 이종찬 이창성 이춘기
 이호성 장우진 장인화 전해진 정성윤 정용경
 정효영 조권재 진호준 채인석 천현석 최근식
 최기평 황운순 (백현호 2018년)
36회(33명)
 김관용 김규선 김성복 김영훈 김홍진 김재호
 김종백 김종오 김창일 김철원 김한교 박영찬
 박재영 박진용 박철종 박형출 방진영 서광원
 신용덕 양호진 오정광 윤용수 이원석 이학수
 임서룡 임창섭 임창희 최상도 최성필 최승호
 하재철 한형식 홍의창
37회(35명)
 김기동 김상현 김성현 김영근 김원범 김의철
 김종휘 김준오 김형기 김화종 노태근 문진형
 문희영 박만규 성장수 소수현 송경철 신우진
 신창호 안용범 안지태 유호섭 이주홍 장원의
 전인수 조상현 조성각 조현철 최재형 최환승

탁낙준 허부남 홍병일 홍원석 황태윤
38회(40명)
 강대식 곽동열 구동주 권두성 김경근 김태훈
 김문철 김상수 김원철 김태호 김판준 김현민
 류인식 문귀상 문익현 박준표 박해도 박현수
 서승현 심재영 심 춘 안길수 오승언 오종현
 오희진 유관재 윤경만 이동훈 이창호 이한국
 정인철 정준기 조석태 조수용 조용철 주영목
 차성철 최 철 최후경 한재필
39회(20명)
 강대경 공영기 김병기 김성완 김윤홍 김종호
 김천술 김해수 노성수 박인석 박병오 배해민
 심왕섭 안영준 오선호 윤원욱 이진호 장원혁
 정순환 지홍준
40회(29명)
 강창지 권귀동 권병서 김경환 김석용 김성진
 김종철 김준강 김희성 문대영 박근성 박무성
 박민규 박승준 배병훈 서주현 심 철 옥진형
 우영환 이 기 이영철 이정삼 임태영 장갑구
 정찬호 최 영 최용석 최지연 최태훈
41회(27명)
 강석희 김성수 김형률 박상환 박정의 박진형
 배종덕 백선민 성종훈 송인환 원태용 윤성한
 윤종진 이경호 이광희 이명재 이수영 이양걸
 이종민 임병호 조재봉 천광환 천성원 허병중
 한정호 허종윤 홍석우
42회(14명)
 김규식 김재용 김정인 김태구 남화정 박동식
 백영환 서정호 신동복 신봉준 이정택 정홍준
 제용환 제정환
43회(13명)
 강병규 구명진 김종식 김진수 박태건 박형규
 심문섭 이성훈 이용상 이호영 전재홍 정동수
 정용훈
44회(12명)
 박주현 배봉근 서영민 이동렬 이상두 임정훈
 정종윤 조영호 최현욱 탁정환 한수성 황인주
45회(11명)
 김상수 김현호 박상화 박 용 박진영 오승현
 이상현 이수태 최재근 최재영 하인수
46회(9명)
 강성백 구경민 권성기 권진근 김동희 배동석
 이성민 한영길 황상철
(권성기 2018년, 이성민 2019년, 한영길 2022년)
47회(5명)
 고달우 서영우 성상용 정민호 정하윤
48회(1명) 김종철
49회(4명) 김학근 장민건 조영철 최진영
50회(3명) 박종현 안개영 정희석
51회(5명)
 강승호 김기호 반길호 이건영 정진우
52회(2명) 김경목 황유광
54회(1명) 양형욱
55회(2명) 김태연 최범준
58회(1명) 김현윤
65회(1명) 최성원
66회(1명) 김시준
69회(1명) 정민기
경고학교운영위원회 등(2명)
 주차증 표창술(故 표종빈(64회) 父)
 기수 & 이름 확인불명 21명
 브라질지역 30만원

**동창회보 광고
 접수합니다.**

모교와 동창회를 돕는 일입니다.

경남중고총동창회
 ☎ 051)245-7551

2018년 축! 창립 30주년!



제이텍만의 프리미엄 퀄리티 더 높은 기술! 더 높은 품질!

1. 여객선 공실 인테리어 턴키
2. 선박 주방 설비 턴키
3. 해상 가구 제조



경남중고 총동창회 회장
대표이사 박 종 찬 (25회)

www.jeitek.co.k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센텀스카이비즈 A동 505호
대표전화 051.780.9400